

李舜臣龜船의 鐵裝甲에 對한 補遺的 註釋

朴 惠 一

서울대학교 工科大学 原子核工學科

Supplementary Remarks on the Iron-armour-clad of
Admiral Yi Sun-Sin's Combat Turtle-boats

BAK Hae-iLL

Department of Nuclear Engineering,
College of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resent report aims at drawing to a certain extent supplementary remarks on the iron-clad of Admiral Yi Sun-Sin's combat turtle-boats in connection with the author's former work on the same subject appeared in the *Journal of the Korean History of Science Society*, Vol. 1, No. 1(1979). The 400-year-old iron-clad tradition for the turtle-boats reveals a concrete image of the special warfare crafts, which were originated by Admiral Yi Sun-Sin against the Japanese Invasion in 1652. However, for lack of technical and practical knowledge on the original turtle-boats, the structural concept has been usually modeled after the brief description(按說) and the schematic drawings for two types of the after-year turtle-boats appeared in the *Complete Writings Concerning the Loyal and Martial Duke Yi* (李忠武公全書), which was published in 1795, i.e., almost 200 years after the Admiral's death. For reexamining the iron-clad aspect based on source evaluations, the essential features of the transitional pattern of turtle-boats are briefly reviewed. The original sources, i.e., a turtle-boat painted on the Blue-white Punch'ong Porcelain Jar(Bu-Bong Art Gallery, Seoul) and a brush-copy original of the Japanese writing *The Record of Ship-battles in Korea* (Soto-oka Jinjaimon, 1592), are photographically presented to demonstrate the reliability of the source evaluation approach in connection with such a long-lived tradition, which may be traced back to its origin. In addition, the significance of the Korean turtle-boat is shortly discussed in the historical frame of the iron-clads for wooden fighting ships. It is concluded that the Yi Sun-Sin's combat turtle-boat with crustacean shield-on is the first iron-armour-clad, which was born in the period of wooden fighting ships and lineally connected the Chinese Mêng-Chhung (蒙衝) with the *Monitor*, the modern type of American iron-armour-clad triumphed in the Civil War.

* 1982년 9월 5일 접수; 12월 8일 게재결정.

I. 序 言

筆者는 李舜臣의 鐵甲龜船을 主題로 한 前 論考에서, 關係資料에 對한 實質的인 再評價를 통하여 鐵甲傳說의 本質的인 意義를 再確認하였고, 現存城門의 鐵甲門扉와의 對比推理에 依하여 當時의 技術背景으로 實現可能한 龜船鐵甲의 施工樣式을 模型概念으로 提示하였다(『한국과학사학회지』, 제 1 권, 제 1 호, 1979, p. 27).

一般的으로, 記錄의 有無는 歷史의 成立上 매우 重要한 것이다. 그러나 記錄資料가 없는 境遇도, 元來(그 對象 또는 그 對象에 對한 記錄이) 없어서 없는 境遇와, 있었던 資料가 喪失되어(傳承되지 못하여) 없는 境遇가 있다. 李舜臣龜船의 全貌를 把握할 수 있는 系統的인 記錄資料가 없는 것은 바로 後者의 境遇에 屬하는 것이며, 唯獨 鐵甲問題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史學者들의 共通된 表現에 따르면, 史料存在의 契機는——歷史的事實의 如何를 莫論하고——매우 偶然的인 것이다. 李舜臣의 歿後 200年, 『李忠武公全書』(1795)가 出版된 것은 무척 多幸한 일이나, 決코 必然的인 것은 아니다. 正祖大王의 뜻에서 發端된 것이다. 卽, 어린 時節 恨뎃힌 宮中悲劇 속에서 자라난 正祖大王이 人間의 認識에 뜻이 깊어, 絕世의 偉人 李舜臣을 再發見하게 된 것에 由來되는 것이다. 그 흔해빠진 領議政의 稱號가 公(李舜臣)에게 追贈된 것도 『李忠武公全書』가 出版되기 2年 前의 일이다. 따라서 正祖大王이 아니었다라면 아직도 『李忠武公全書』와 같은 編纂이 實現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充分히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와는 별도로, 大衆의 鐵甲傳說만은 끊임없이 지금까지 傳承되었을 것으로 믿어진다.

本稿의 目的은 前論考(本誌 제 1 권, 제 1 호, 1979) 및 韓國科學史學會에서의 發表內容(成均館大學校, 1979年 1月 22日)에 關聯하여, 關係資料에 對한 補遺의 註釋을 追加하고 史料의 確定을 補完하는 데 있다. 아래 各節의 考察內容은, 亂後에서 正祖期에 이르는 龜船像의 變貌(Ⅱ), 口承의 鐵甲傳說에 대한 史料性(源泉性)의 再檢討 및 繪畫의 傳說인 遺物「靑白磁粉靑鐵畫龜船紋항아리」(富峰美術館藏)에 對한 內的 解釋(Ⅲ), 그리고 當時의 倭側記錄「高麗船戰記」(外岡甚左衛門, 1592)에 對한 筆寫原本의 소개 및 評價(Ⅳ) 등의 차례로 되어 있다. 前 論考와 重複되므로, 本稿에서는 結論의 節을 省略하고, 鐵甲船에 對한 簡略한 歷史의 註釋(V)으로 끝맺고자 한다.

Ⅱ. 李舜臣龜船, 그리고 肅宗 - 正祖期의 龜船像

다음 節의 鐵甲傳說에 對한 論議에 앞서, 現存史料에서 認識할 수 있는 龜船의 자취를 簡略하게 더듬어 보기로 한다. 李舜臣龜船이란, 壬辰倭亂當時 李舜臣統制使에 依하여 創案實用된 鐵裝 - 裝甲船을 가리켜 略稱한 것이다.

壬辰前年에 全羅左水使로 赴任한 李舜臣은 倭侵에 對備하여 創作龜船의 建造에 着手하였고, 壬辰年(1652) 4月 倭軍의 侵入과 거의 同時에 龜船이 完成된다. 그後 李舜臣艦隊는 잇따른 海戰에서 勝利하였고, 언제나 先鋒이 되어 實戰의 實用性을 發揮한 龜船도 數三隻을 保有하게 된다. (結局, 鐵甲說에 關聯된 우리의 考究對象은 바로 이 무렵의 龜船인 것이다!!) 丁酉年(1597) 2月, 兵使 및 都元帥의 判斷錯誤(倭間諜事件)와 朝廷 一派의 謀陷으로 投獄된 李舜臣은, 極甚한 獄苦 끝에 政治的 謀殺이 企圖되었으나, 鄭琢의 勇氣있는 嘆願으로 損命은 면하게 된다. 丁酉再侵으로, 同年 7月, 李舜臣의 손에 이루어진 莫強한 艦隊는 元均의 指揮下에 龜船도 戰船도 거의 全滅하게 된다. 8월에 統制使로 再任命된 李舜臣은 겨우 13隻의 戰船을 거두어 鳴梁海戰을 奇蹟的으로 克服하고 艦隊를 再建하기에 이른다. 이때부터 露梁에서 戰死하는 戊戌年(1598) 11月까지의 期間內에 龜船을

다시 建造하였는지의 與否는 分明하지가 않다. 따라서, 오직 壬辰亂 前期에 存在한 龜船만이 論議의 對象으로 意義를 가지게 되나, 體制를 갖춘 技術的 資料는 남아 있지 않다. 다만 公(李舜臣)의 戰果報告書와, 公의 조카 李芬이 亂後에 記錄한 行錄 中에 龜船의 構造에 對한 言及이 있어, 斷片的 이나나 龜船의 構造研究를 爲한 當時記錄 中에서는 가장 所重한 史料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두 記錄에서 主로 構造에 關聯되는 部分을 아래에 옮겨 본다 :

『……臣嘗慮島夷之變 別制龜船 前設龍頭 口放大炮 背植鐵鎗 內能窺外 外不能窺內 雖賊船數百之中 可以突入 放炮……』(李舜臣, 唐浦破倭兵狀, 壬辰(1592) 6月 14日)

『……創作戰船 大如板屋 上覆以板 板上有十字形細路 以容人之上行 餘皆插以刀錐 四無着足之處 前作龍頭 口爲銃穴 後爲龜尾 尾下有銃穴 左右各有六穴 大概狀如龜形 故名曰龜船 及後遇戰 以編茅覆 於錐刀之上 而爲之先鋒……』(李芬, 行錄, 「李忠武公全書」收錄)

統制使의 失脚, 派黨의 人事變動, 艦隊의 慘敗, 戰局의 全面的인 破綻, 再任命 및 艦隊의 再建, 統制使의 悲壯한 最後……등의 風土의 波瀾 끝에 倭亂이 終息되니, 亂後에 技術文書가 保全될 리가 없는 것이며, 龜船의 實用的인 運營이 杜絕되었을 것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다.

宣祖 38年(1605), 公의 歿後 7年, 七代統制使로 赴任한 李雲龍은 在任中에 있었던 일을 啓本謄錄에 收錄하고 있다. 그中에, 지난날 龜船建造의 主役을 맡았던 造船差官 羅大用이 鎗船의 實用化를 力說, 建議하는 內容이 있어 亂後의 事情을 理解하는 데 도움이 된다(附錄 1 參照). ——羅大用의 建議 內容과 左副承旨 朴震元의 啓文으로 되어 있는데(萬曆 34年(1606)), 그 要旨는 大略 다음과 같은 것이다 : 『……倭敵을 막는 데는 舟師(水軍)만한 것이 없는데, 壬辰 - 癸巳年間에는 戰船의 數가 200隻에 達하였으나 오히려 不足하였고, 丁酉再亂 後에 갖춘 戰船의 數는 三道를 合하여 겨우 60餘隻인데, 그것도 各處에 分散되어 있어 소홀함이 憂慮되나 束手無策입니다. …… 軍(軍士)은 不足하되 더 갖추지 못하니, 그(不足한) 軍(兵力)으로 배(船)를 增加시키는 方策은(다음과 같습니다). 卽 龜船이 비록 싸움에 쓰기에 利로우나 射格의 數가 板屋船의 125名보다 적지 아니하고, 射夫 또한 不便한 연고로 各營에 한隻씩만 두고 더 만들지 않습니다. 臣이 항상 格軍을 줄이는 方策을 생각해 왔는데, 己亥年間에는 이미 巡察使가 되어서, 韓孝純이 軍官으로, 따로이 戰船 25隻을 만들게 하였을 때, 板屋船도 아니고 龜船도 아닌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 劔과 鎗을 숲처럼 꽂아 이름하여 鎗船이라 했고 格軍 42名을 나누어 실어 바다에서 노젓는 것을 試驗하니, 그 빠르기가 나는 듯하였고 射手의 便利함 또한 板屋船보다 나았습니다. ……」 亂後의 水軍內의 雰圍氣가 잘 나타나 있는 內容이다. 兵力의 充員이 뒤따르지 않고, 龜船은 戰時에는 利로왔으나 射手와 櫓軍의 數가 많아져 되므로 運用이 困難한 實情에 處한 것이다. 이 啓文은 거듭 舟師의 前에 比하여 不足함을 鎗船의 使用으로 解決해 보려는 方策을 力說하고 있으나, 鎗船의 制度는 格軍은 42名으로 줄일 수 있다 하더라도, 船體가 狹小하여 左右에 防牌를 設置할 수가 없어, 實戰用으로서의 適否는 試驗하여 決定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意見으로 맺고 있다. 卽 亂後 8年, 이미 實用性이 低下된 非戰時의 龜船은 各營에 한隻씩만 配置되어, 制度의 形式만이 維持되고 있는 형편이었다.

歲月이 흘러 亂後 17年(光海君 7年), 巡檢使 權盼이 水軍을 檢閱하고 李舜臣이 定한 바의 戰船의 옛制度를 勘定하여 舊制로의 復歸를 圖謀하나(10年이면 江山도 變하기 때문에), 時期로 보아 이미 늦은 感이 없지 않다. 이때의 事情은, 龜船이나 戰船의 肥大化를 念慮하기에 이르는 肅宗期의 記錄에 잘 나타나 있다(「備邊司謄錄」, 第四十一冊, 肅宗十三年丁卯正月初一日 2-3面 參照). 卽, 肅宗期의 國防增強, 水軍의 整備 등이 論議될 무렵, 丙寅年(1686) 12月 28日 領議政 金壽恒과 右議政 李端夏가 請對入侍하여, 兵曹判書 李師命, 工曹參判 徐文重 등이 戰船의 制度가 前에 比하여 커졌으니 舊定節目(李舜臣의 制度에 對한)에 準하여 改善되어야 한다는 意見을 놓고 討議하게 된다. ——이와 같은 復古精神은 좋았으나, 때는 이미 늦은 것이다. 그러나 成果의 與否는 고사하고, 肅宗朝를 指

稱하여 龜船의 復興期라 하여도 過讚은 아닐 것이다.

이 會議에서는 肅宗 10년에 六十二代統制使를 歷任한 바 있는 邊國翰의 報告內容이 引用되고 있는데, 그 內容은 『忠武公 李舜臣의 定한 바 格式 내지 舊制는, 두번 지난 乙卯年(1615!)에 巡檢使 權盼이 三南의 舟師(水軍)를 檢閱할 때, 統制使, 三道諸將, 老卒 등과 더불어 相議하여 한 배에 실는 軍器什物, 배의 長短廣狹 등을 일일이 勘定書로 꾸며 놓은 것이다……』라는 것이다. 또한, 戰船의 크기가 漸次 增加된 데 對한 批判에 있어서는 意見不同이었으나, 曾經制使 등 海防에 익숙한 사람들이 서로 論議한즉 모두가 『……舊制不可輕改』라 하며, 『當初 節目을 꾸밀 때(權盼이), 亂이 지난지 오래지 않아 李舜臣의 將校나 늙은 兵士가 아직 살아 있는 사람이 있어, 모든 武將과 함께 廟堂에 모아 勘定한 것이라서, 그 定한 바 尺數는 반드시 李舜臣때의 옛 制度에서 나온 것이고……』라고 하니 임금도 옛 節目에 定한 바 尺數에 依하여 遵行하라는 뜻을 내린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問題는 바로 다음에 있는 것이다: 領議政曰 『……龜船制度尺數, 不載於巡檢使節目中, 一如 戰船, 漸次高大之說, 似果然矣.……』 卽 龜船에 關한 舊制는 巡檢使 權盼의 勘定節目(1615)에도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長短體制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금 만드는 바의 龜船의 失制 與否를 推測하기가 어려운 가운데, 戰船과 한가지로 漸次 高大해진다는 說은 그럴듯하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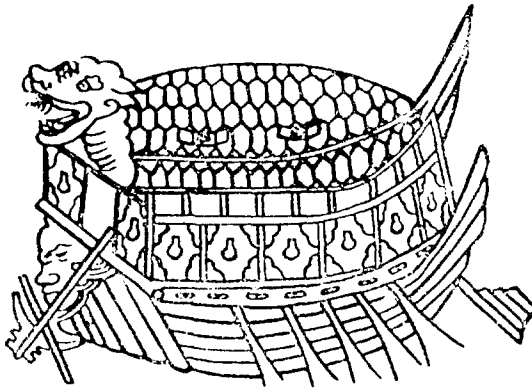
技術的 史料로서의 充實性 與否는 고사하고, 最小限의 體制를 갖춘 龜船文獻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면, 바로 「李忠武公全書」의 龜船에 關한 「按說」과 2面의 版畫龜船圖가 그것이다(附錄 2 및 附錄 3 參照). 周知하는 바와 같이, 「李忠武公全書」는 公의 歿後 200년이 지난 正祖 19年(1795)에 王의 큰 뜻으로 編纂된 것이다. 이것은 公의 「亂中日記」를 비롯하여 公의 行蹟과 公을 禮讚하는 詩文, 碑銘 등 여러가지 關係記錄을 集大成한, 實로 30餘萬字에 達하는 貴重한 책이다. 그러나 그 속에서 龜船에 關한 記述(按說)은 700字 內외의 짧은 要約에 不過한 것인데, 또 여기에 새로운 것이 있다면 400字 程度의 構造諸元에 對한 說明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 說明과 龜船의 그림을 比較해 보면, 相違한 點도 없지 않다. 特히 船首部分의 記述『鑪版(荷版)聯四 高四尺……』은 讀者의 創造力 없이는 그 構造上의 解釋이 不可能한 것인데, 版畫龜船圖가 제시되어 있어, 鑪版의 構造가 如何함을 視覺的으로 補完해 주고 있다. (筆者는 鑪版의 說明句가 印刷에서 누락된 것으로 判斷하고 있다. 公의 「亂中日記」에서도 누락된 句節이 적지 않다.) 또, 按說에는 「龜頭」라고 쓰고 있으나, 그림에는 分明히 龍머리로 描寫되어 있다. 以下 「龍頭」로 表現한다.

이 按說이 말하는 (正祖期의) 龜船制度에는, 鐵甲은 고사하고 鐵銃의 言及조차 없다. 創作龜船에 對하여는, 다만 李芬의 行錄에서 引用하고(船上覆以版……悉以錐刀布之 前龍頭 後龜尾 銃穴前後左右各六……等), 그 尺數에 對하여는 詳細히 말한 것이 없다는 것과, 지금의(正祖 때의) 統制營龜船(放砲 一龍頭)이 『大畧 忠武公의 옛 制度에서 由來한 것이나 또한 若干의 尺數加減이 없지 않다』라고 釋然치 않은 註釋을 附言하고 있다. (釋然치 않을 것은 當然한 일이다.) 그리고 全羅左水營龜船(吐煙 一龍頭)에 言及, 『……覆版 위에는 거북무늬를 그렸고, 左右舷에 砲穴이 各 10個, ……櫓가 各 8個……』 등으로 統制營龜船과의 差違를 말하고 있다.

現在 우리 周邊에서 볼 수 있는 考證性 있는 龜船模型이나(附錄 4 參照), 또 1981年 初에 鎮海의 海軍基地에서 進水된 바 있는 實物大의 復原龜船은 「李忠武公全書」의 上記 按說中 主로 全羅左水營 龜船을 본따서 만든 것이고, 거기에서 鐵甲과 鐵銃을 더함으로써 李舜臣의 鐵甲龜船을 象徵的으로 記念하고 있는 것이다. — 지금으로서는 李舜臣龜船 自體에 對한 分化된 考究史料가 없으므로, 그 以上 別道理는 없다 하겠으나, 壬辰 以後 200年間, 舷當 砲門數가 6에서 8, 8에서 10으로 增設되는 등의 적지 않은 改造變遷이 있었음¹⁾을 念頭에 두고 鑑賞해야 할 것이다. Ingeborg Göthel 教授의 著

1) 金龍國, “壬辰倭亂後 龜船의 變遷過程”, 『學術院論文集』, 人文社會科學編, 第7輯, 1968, (註). 이 論文에서는, 肅宗朝에 國防力의 充實과 水軍整備에 注力한 事實로 미루어 正祖代의 龜船도 實은 肅宗朝에 整備된

書 *Geschichte Koreas*(Berlin: VEB Deutscher Verlag der Wissenschaften, 1978)에는 第 1 圖와 같은 龜船圖와 鐵甲龜船의 說明이 보인다. 이것은 바로 全羅左水營龜船의 型이나, 李芬의 行錄記錄대로 舷砲門數를 (10門에서) 6門으로 줄이고, 거기에 比例하여 櫓數까지도 (8個에서) 5個로 줄여 그리고 있어 獨逸學者의 고지식함을 엿보이고 있다. 模型도 그렇거니와, 國內외의 龜船 描寫에 全羅左水營龜船, 卽 吐煙 - 龍頭型이 愛用되고 있는데——公 自身の 說明인 『前設龍頭口放大炮』(唐浦破倭兵狀)에도 不拘하고——그것이 單純히 後世의 鑑賞의 嗜好에서 由來된 것일지?



Gepanzertes „Schildkrötenschiff“, eingesetzt unter dem Kommando Admiral Li Sim Sins bei der Abwehr der japanischen Invasion 1592-1598

..... Diese Erfolge erreichte die koreanische Flottille weitestgehend durch ihre „Schildkrötenschiffe“ (Gwibukson). Diese neuartigen Schiffe besaßen sehr niedrige Bordwände und waren mit einem durch dicke Eisenplatten verkleideten Überdeck versehen. Sie hatten die Form des ostasiatischen Glückssymbols für ein langes glückliches Leben, der Schildkröte, und waren sicher vor Kugeln und Geschossen der damaligen Durchschlagskraft.

Fig. 1. An Example of the Turtle-boat Representation.

(Quoted from *Geschichte Koreas* by I. Göthel, VEB Deutscher Verlag der Wissenschaften, Berlin, 1978)

The type of turtle-boat with the dragon-head mounted in the raised position is illustrated according to the type classified as the one under the Left Navy Command of Chölla Province in the 18th century.

끝으로, 「按說」에 關聯하여 鐵甲 및 鐵銃의 問題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直言하여 正祖期龜船은 非戰時의 龜船이다. 따라서, 일단 有事時에는 可能한 限의 武裝의 再整備가 必須인 것이다. 卽 鐵甲, 鐵銃 等の 施工은 龜船이 實戰에 臨할 때에 必要한 것이다. 따라서 龜船蓋板에 거북무늬가 그려져 있다는 「按說」 內容은 充分히 首肯할 수 있는 것이며, 防水性이 있는 塗料였다면 더욱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다. 2年前 鎮海 海軍基地에서 實物大 龜船의 復原建造를 爲한 考證討議가 있었다. 趙成都教授의 司會로 進行되었는데, 鐵甲施工에 關한 討議에서 建造計劃을 擔當한 將校로부터 무척

모습과 거의 같았을 것으로 推理하고 있다.

印象的인 提案이 있었다. 그것은 鐵甲을 省略하고 塗料로 代身하기를 提案하는 內容이었다. 거기에는 至當한 理由가 있었다. 卽 적지 않은 豫算(進水時의 紙上報道로는 2億餘圓)으로 建造된 거북선을 可及的이면 오래 保全할 수 있어야 한다는 意見인 것이다! 實際로 鐵甲을 입힌 境遇에는, 더구나 바다에서, 鐵의 腐蝕作用(녹과 부풀음)으로 因하여 蓋板壽命이 短縮된다는 뜻이다. — 研究 끝에 非鐵金屬인 놋쇠板이 使用된 것으로 들고 있다. 무게로 본다면, 鐵의 密度 7.9g/cm^3 에 對하여 놋쇠가 8.5g/cm^3 이므로 놋쇠가 더 무겁다.

III. 鐵甲傳說과 粉靑「龜船紋圖」에 對한 註釋

史料의 現存與否는 至極히 偶然한 事情에 달려 있으며, 天災地變이나 戰亂 또는 그 民族의 資料 保全에 對한 認識不足 등으로 因하여 亡失되는 例가 虛多한 것이다. — 2年前(1979年 6月頃), 統營 古屋의 壁도배지 속에서 奇異하게도 水軍의 古文書가 發見되어 史料에 아쉬운 研究者들을 자극한 일도 있었다. 이 奇蹟的인 資料 中에서, 特히 龜船에 關한 記錄文書 一面을 參考삼아 이 자리에 옮겨본다: 『庚子十月 日 右龜船旗鼓汴物外重記 右龜船壹隻本板長拾貳把高十四尺 癸巳九月 日新造...』, 壬辰亂 以後 몇번째 癸巳年의 龜船인지 推理될 수 있을 듯하다(附錄 5 參照).

前近代의 史家들 中에는 그들의 慣習的인 信條로, 根據있는 唯一한 史料란 오직 씌어진 것인 양 하는 傾向이 많았던 것도 事實이다. 그러나, 傳說(Tradition) 또한 過去의 復原을 爲한 有益한 史料인 것이다. 19世紀 末부터, 이른 바 史料學(Quellenkunde)의 이름으로 傳說이 지니는 史料로서의 本質과 比重이 慎重히 評價되기에 이르렀다. E. 베른하임에 依한 傳說的 分類 및 評價가 그것이며,²⁾ C. V. 랑루아 및 C. 세노보는 史料分析上的 보다 根本的인 懷疑와 批判精神을 鼓吹하고 있다.³⁾ 베른하임의 傳說에 對한 廣義의 分類에 따르면, 東西古今의 史料 가운데 傳說範疇에 屬하지 않는 것이 果然 얼마나 될 것이며, 도 랑루아 및 세노보와 같은 徹底한 懷疑에서 出發한다면, 過然 어떠한 歷史가 씌어질 수 있을는지 疑問이다. 도대체, 過去의 歷史的 事實이 비록 實證的 史料操作에 依해서라 하여, 果然 L. 랑케의 表現대로 “wie es eigentlich gewesen ist” (元來 있던 그대로)의 모습으로 唯一하게 復原, 確定될 수 있을 것인가? — 結局, 歷史란 무엇인가의 本質的인 質問에 對하여, E.H. 카는 『歷史란, 歷史家와 事實 사이의 끊임없는 相互作用의 過程이며, 現在와 過去 사이의 그칠 줄 모르는 對話이다.』라고 맺고 있는 것이다.⁴⁾ 筆者는 우선 E. 베른하임의 史料學的 視點에서, 龜船鐵甲에 關한 傳說 成立의 與件 및 妥當性을 再確認하고자 하는 것이다.

以下, 筆者의 前 論考(1979)에 對한 註釋으로, 李舜臣龜船 鐵甲說에 對한 傳說的 意味를 다시 살펴 보기로 한다. 卽 베른하임流의 傳說分類에 따라 口傳的 傳說과 이에 密接한 連關性을 갖는 繪畵的 傳說을 吟味하고자 한다. 鐵甲說의 成立與件, 卽 傳說이 如何히 하여 成立되었으리라는 觀點은 이미 前 論考에서 充分히 言及한 바 있다. 따라서 重復을 避하여, 여기서는 단지 그 傳說 自體가 壬辰亂 以後 今日에 이르기까지 果然 400年의 傳承經歷을 지니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例컨대 近世開花期에 들어와서 비롯된 것인지의 疑問에 對하여 몇가지 見解를 附言하고자 한다. 元來 口傳的 傳說이란 文字 아닌 言語가 唯一한 表現手段인 下層社會, 또는 農夫와 兵士와 같은 集團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口傳內容이 後日의 記錄으로 옮겨지는 수도 있겠으나, 그것은 文筆을 享有한 上層社會의 關心如何에 달려 있는 것이다. 따라서 口傳에 對한 記錄的인 痕蹟이 남아 있지 않는

2) E. Bernheim, *Einleitung in die Geschichtswissenschaft*, Dritte und vierte, neubearbeitete Auflage, Berlin und Leipzig, 1926, p. 104 (이 책의 初版은 1905年인).

3) C. V. Langlois et C. Seignobos, *Introduction aux études historiques*, 3e édition, Paris, 1905; 랑글로아, 세이뇨보 (高橋巳壽衛 譯), 「歷史學入門」, 人文閣, 1943, 179頁.

4) E. H. Carr, *What Is History?*, First Edition, Macmillan, 1961, p. 24.

境遇는, 그 口傳 自體의 口承經歷조차도 쉽게 證言할 道理가 없다. 이러한 口傳은 단지 口傳일 뿐인 것이다. 如何間 壬辰倭亂이 낳은 傳說, 특히 勝捷을 動機로 한 것이 적지 않다. 鐵甲龜船을 비롯하여 鳴梁海戰 때의 강강수월래, 幸州山城싸움에서의 행주치마, 露梁海戰에서 투구와 갑옷을 끌고고 맞이하는 公의 最後의 場面, 또는 紅衣將軍(郭再祐) 등, 앞으로도 끊임없이 口承傳達될 것으로 믿어진다. 그런데, 大衆의 鐵甲說(主張)에 關하여 그 傳說 自體의 發端由來 確認에 깊이 留意한 바 있는 H.H. 안더우드는 이 疑問에 對하여 다음과 같은 興味있는 內容을 報告하고 있다; 『……그러한 鐵甲傳說를 創作해 낸다는 것은 鐵甲 그 自體를 發明하는 것만큼이나 非凡한 재주라고 말할 수 있겠다. 또 이 傳說是 아주 最近의 것이 아니다. 大院君 時節, 프랑스의 遠征이 豫想되었을 때, 한 不運한 官吏가 그 獨裁君主로부터 “거북선과 같은 鐵甲船을 建造하라”는 命令을 받게 되었다. 그는 絶望의인 不安 속에서, 명실 鐵甲船을 만들기 위한 試圖에 그의 모든 財物을 소비하였으나 그 鐵甲船은 非情하게도 뜨기를 拒否하였다. ……」⁵⁾ 또한 著者는 『이 官吏는, 나에게 이 이야기를 直接 들려 준 延禧大學의 Prof. I. P. Cheung(鄭寅普인 듯함)의 親戚이었다』라는 註釋을 붙이고 있어, 위 內容의 信憑性을 더욱 높여 주고 있다. 卽 1860年代 天主教徒들의 處刑에 이어 西洋船舶들이 近海에 出沒할 무렵, 大院君은 “거북선과 같은 鐵甲船”을 想起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鐵甲傳說的의 由來도 最少限 120年 以前으로 소급되는 셈이다. 위의 不運한 官吏가 겪은 鐵甲船의 下命事件쯤 宮中 記錄의 한구석에 收錄되었더라면 무척 多幸한 일이라 하겠으나, 朝廷의 雰圍氣로 미루어 어찌 그러한 것을 期待하였는가?

鐵甲傳說 成立에 對한 論議로서, 그 發端이 韓末 開花期보다도 훨씬 先行된다는 事實의 確認만으로도 充分하다 하겠으나, 한가지만 더 附言해 둘 것이 있다. 그것은 1831년에 發刊된 倭書「征韓偉略」⁶⁾에, 所謂「高麗船戰記」(다음 節에서 詳述할 倭側記錄)을 引用한 龜船의 言及이 있다는 點이다: 卽『……敵船有以全鐵裝者……』의 內容은 龜船의 鐵甲을 뜻하는 句節인 것이다. 그러면 1830年代에 이 倭書가 우리나라의 識者層에 或是 渡來되어 鐵甲說을 낳은 것은 아닐는지 하는 杞憂가 없지 않다. 그러나 그러한 可能性은 매우 稀薄한 것이다. 當時의 文化層, 卽 兩班層 한두사람의 關心에 依하여 民衆의 傳說이 誕生될 可能性이란, 우선 認識의 疎通이 차단된 階層風土 속에서 期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은, 以上の 口傳의 鐵甲說의 成立에 連關하여, 하나의 繪畫의 傳說(bildliche Tradition)을 제시하고자 한다. 서울 富峰美術館 所藏의 「靑白粉靑鐵畫龜船紋항아리」⁷⁾를 寫眞으로 紹介하고, 그 龜船紋圖의 史料性을 吟味하여 본다(第2圖 및 第3圖 參照). —입지름 10.8cm, 몸지름 20.3cm, 밑지름 9.5cm, 그리고 높이가 16.7cm의 작은 朝鮮때 항아리. 거기에 北畵風의 강한 線과, 近代의 素描力을 彷彿케 하는 圓熟한 筆致로 한隻의 鐵甲龜船이 그려져 있다. —우리들의 左側前方을 向하여 突進해 오고 있으며, 좀더 다가서면 左舷 6門의 砲가 一齊히 쏘아낼듯한 威勢이다. 硫黃불 煙氣를 吐하고 있는 龍머리 또한 達筆한 描寫인데, 그 諧謔의 表現이 或種의 回想的인 感懷를 傳해 주는듯 興겨웁다. 또 이 그림은 美學的 觀點에서뿐만이 아니라, 龜船構造의 各部分을 寫實性 있게

5) Horace H. Underwood, "Korean Boats and Ships,"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Vol. XXIII, Seoul, Korea, 1934, p. 75.

6) 川口長孺, 「征韓偉略」, 卷之二, 水藩彰考館, 天保二年(1831); 8頁.

7) 이 「靑靑龜船紋항아리」는 民族美術 蒐集家이며 富峰美術館의 設立者인 富峰 金炯泰館長에 依하여 倭政時代에 入手, 所藏된 것이다. 說明에 따르면, 1910年頃 固城의 한 草家집터에서 發掘되어 日本人 손에 들어갔었다고 한다. 그 집터 밑에는 或種의 礎石의 痕跡도 남아 있었다고 하나 確實한 것은 알 수 없다. 筆者는, 金忠男將軍의 소개로, 醫學의 李根培教授와 作家 崔應泰先生과 함께 數次 訪問하여 館長님의 說明을 直接 배청할 機會를 가졌다. (靑靑系磁器는, 高麗末 象嵌靑磁에서 誕生, 朝鮮 初期의 全盛期를 거쳐 漸次 低下되어, 마침내 壬辰倭侵의 戰禍로 인하여 壞滅되었다고 하는 것이 定說이다. 따라서, 壬辰亂以後의 靑靑은 그 頻도가 激感되어 매우 稀有한 것이다.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富峰美術館의 金炯泰館長의 高見에 따르면, 이 靑白粉靑砂器의 年代는 遺物 實體의 鑑定 및 年代上의 特性, 그리고 畫風 등으로 미루어 (朝鮮 前期에서) 16世紀末의 時期로 推定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龜船圖의 成立은 龜船의 存在 以後이어야만 可能한 것이므로 (卽 壬辰 以後), 이 境遇에는 陶磁器 自體의 外的 分析에 앞서, 오히려 龜船紋圖 自體에 對한 內的 批判(innere Kritik)이 史料確定을 爲한 主要基準이 될 것으로 믿어진다. — 卽, 이 龜船圖가 과연 어느 時期의 龜船像에 該當될 것인가를 推定하는 問題에 歸結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림에 나타나 있는 龜船의 構造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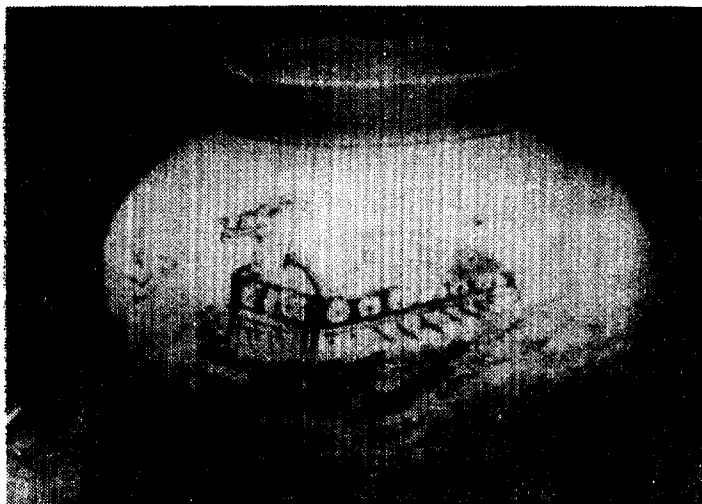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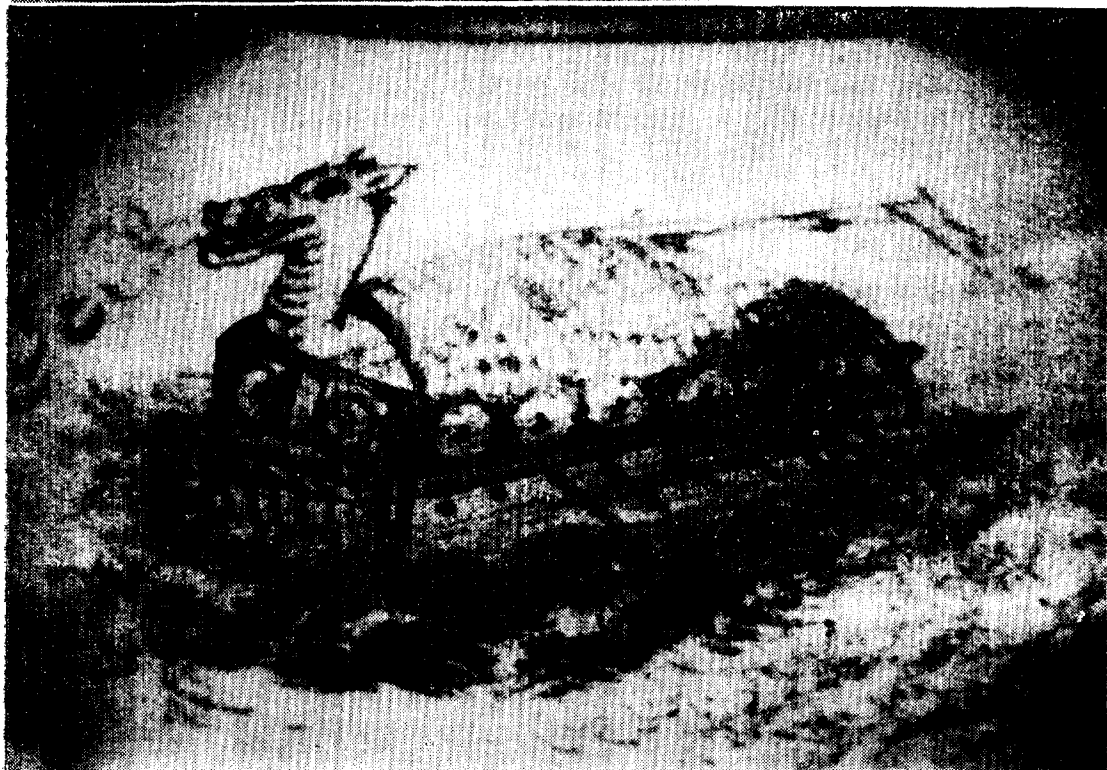


Fig. 2. Blue-white Punch'ong Porcelain Jar with Turtle-Boat Design painted in Underglaze Iron; Height 16.7cm, Mouth Diameter 10.8cm, max. Breadth 20.3 cm and Base Diameter 9.5cm. (Bu-Bong Art Gallery, Seo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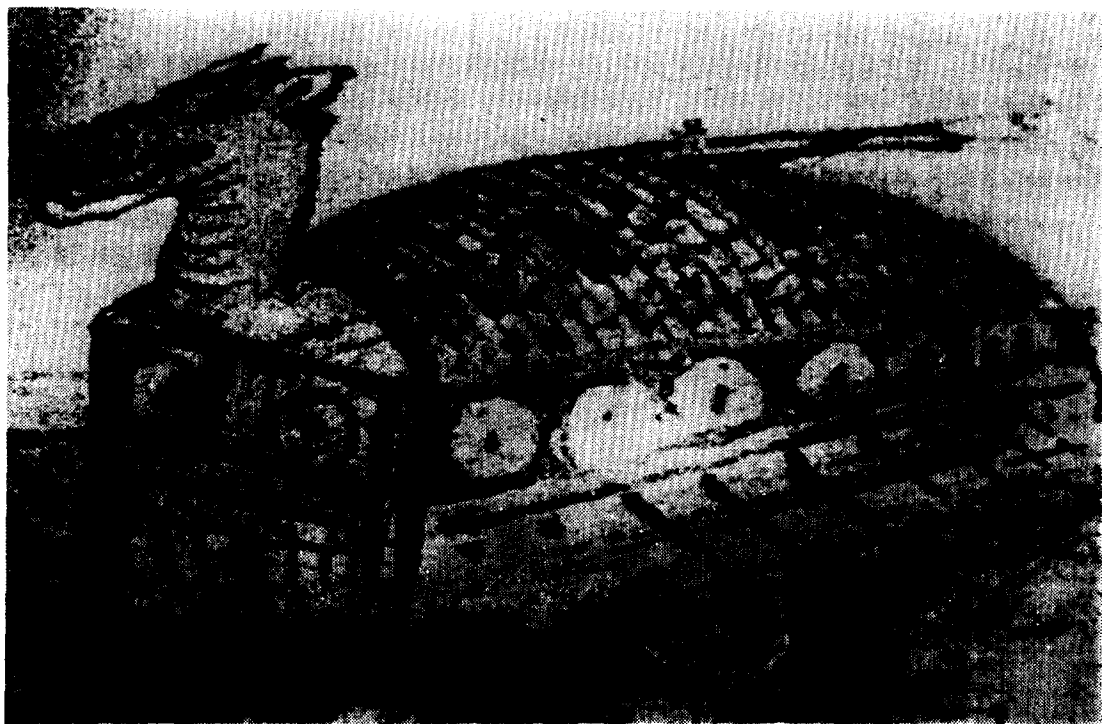


Fig. 3. Enlarged Photograph of the Porcelain Painting for Turtle-Boat.

Combative features of the Iron-Clad Turtle-Boat studded with Iron-Spikes. For rushing at enemies, 20 oars are fully used (10 for each side), but 3 oars (1st, 2nd and 10th at the left oar system) are not shown in the figure, probably missed. Two masts are laid backward to improve her maneuverability and for the protection of sailing equipments. Sulfuric fumes are poured out through the mouth of the Dragon. Two front and twelve side gunports (6 for each bulwark) are also represented. (The date of the porcelain painting is estimated between 1592 and first few decades of the 17th century.)

項目別로 나누어 살펴 보기로 한다:

a. 돛 대

忠武公全書「按說」에서, 明나라 華鉦의 海防議로부터 『朝鮮의 龜船은 돛대를 세우고 돛하기를 뜻대로 하고……』라고 引用하고 있듯이, 앞뒤 2개의 돛대가 實感있게 가지런히 놓여져 있다. 臨戰態勢인 것이다. 돛대의 裝備를 保護하며, 機動性を 높이기 爲한 것이다.

b. 背甲板의 鐵裝甲 및 鐵釘

全羅左水營龜船圖(附錄 3)도 그러하거나와, 우리 周邊에서 볼 수 있는 거북선그림의 거의 大部分이 거북무늬를 본따서 背甲板을 表現하고 있다. 最近의 模型이나 復原龜船(鎭海) 역시 鐵甲의 鐵葉으로 거북무늬에 該當되는 六角形鐵板을 擇하고 있다. 그러나 實際에 있어서, 龜船背甲板의 거북무늬가 名實 視覺的인 效果를 나타내려면, 六角形鐵葉의 크기가 對角線길이를 하여 적어도 1m 以上の 크기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장간의 鍛造加工法으로 그러한 大型鐵葉을 能率적으로 生産해 낸다는 것은 決코 容易한 일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龜船背甲板의 鐵甲樣式도, 現存城門의 鐵甲門扉에서와 같은 四角形鐵葉(20cm×60cm 内外)이 使用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自然스럽고, 또 實用的이다.

龜船紋圖(第 3 圖)에 보이는 背甲板의 鐵裝甲 描寫도 역시 四角形 鐵葉이 使用된 施工樣式으로 解

釋된다. 卽, 船軸에 平行하게 같은 背板판자에 直角으로 交叉되는 方向으로, 等間隔의 (弧)線들이 左右舷으로 이어져 있다. (穹窿化된 背甲板의 曲面을 나타내기 爲하여 補助的으로 使用된 線은 決코 아닌 것이다.) 이들 線 사이의 間隔이 바로 四角形鐵葉의 가로에 該當될 것으로 생각된다. 個個 鐵葉을 일일이 區劃하지 않은 것은, 빛의 陰影關係도 있으려니와, 鐵甲 위에 솟은 鐵鈐의 描寫와의 混同을 避하기 爲한 素描上의 配慮로 理解된다. 第4圖에 보인 鐵甲門扉의 寫眞과 比較해 본다면, 畫家의 對象把握에 對한 內的 構想의 如何함을 充分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鐵鈐 또한 寫實性이 豊富한 描寫가 아니할 수 없다. 흔히 鐵鈐錐刀의 森嚴함을 必要 以上으로 誇張하기 쉬우나, 敵兵의 接舷登船을 沮止함에 20 - 30cm 程度의 鐵鈐이면 適合할 듯하다(다름쇠(荻藜)는 단 한뼘 程度에 不過한 것이다). 이 龜船紋圖는 鐵鈐에 對한 外觀上의 雰圍氣를 適切하게 傳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鐵甲 및 鐵鈐에 對한 이와 같은 實事性 있는 構想이, 傳說이나 想像만으로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c. 背甲板의 四角形門孔

背甲板構造에서, 四角形으로 뚫린 通用口가 2個 보이고 있다. 背板 左右에 各 2個로 보아 전부 4個인 셈이다. 後年의 全羅左水營龜船(「李忠武公全書」)에도 이에 該當되는 背板門孔 4個가 그대로 답습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돛대의 操作 및 整備, 觀測, 採光, 通風 等 多目的의인 用途로 推理되며, 位置는 大略 2個의 돛대에 對應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龜船紋圖의 四角孔은 左右로 길게 나 있으며(90cm×150cm 程度), 全羅左水營龜船의 그것은 앞뒤로 긴 四角形에 뚜껑까지 그려져 있으나, 돛대는 없다. 卽, 龜船紋圖에는 「李忠武公全書」를 參酌한 흔적이 전혀 없는 것이다.

d. 舷牌板의 砲穴

舷의 牌板에는 船尾쪽의 한 칸을 除外하고는 6門의 砲穴이 잇따라 表示되어 있다. 李芬의 行錄에 보이는 『左右各有六穴』, 卽 李舜臣龜船에 對한 唯一한 舷當砲穴數 記錄과 一致되고 있다. 이것은 第1圖의 例와는 다른 것으로, 單純히 記錄(李芬의 行錄 等)에 依한 配慮에서가 아님은 다른 項目의 考察에서도 歷歷한 것이다. 따라서, 이 龜船紋圖의 龜船은 英祖朝의 舷當 8門 以前의 時期로 溯及되어 마땅한 것이다. —舷當 8個 砲門의 龜船이란, 英祖時代 嶺南均稅使로 派遣된 朴文秀가 龜船이 漸次 커지고 非實用化되고 있는 實態를 王에게 上奏한 內容 속에 『……而今則各開八穴……』이라고 한 英祖 때의 龜船을 뜻하는 것이며, 이 朴文秀의 報告는 英祖 27年(1751), 卽 李舜臣의 歿後 約 150年이 經過했을 때의 일이다.⁸⁾

e. 櫓

舷板에 뚫린 櫓孔이 10個 보이므로 左右 各各 10個의 櫓로 생각된다. 우리쪽으로 보이는 左舷의 1番, 2番 및 마지막 10番째 櫓는 櫓孔만 보일 뿐, 櫓는 그려져 있지가 않다. 戰鬪中 破損되어 상실된 것일까? 또는 普通 7個만 使用되고 3個는 豫備의인 櫓孔일까? 如何間, 「李忠武公全書」의 統制營龜船의 「左右櫓各十」과 同一한 櫓數이다. 한편, 거북선이 普通戰船보다 『縱橫出入이 如梭……』의 表現처럼 實際로 빨랐다고 한다면, 船體가 肥大化되기 以前의 年代에서 이미 「左右各十」程度의 推進力은 갖추었을 것으로 보아 마땅한 것이다. 櫓型은 船軸에 直角인 藤衝櫓式이며, 櫓役은 下粧櫓役으로 判斷된다. (그러나, 觀察者에 따라서는 1番, 2番 및 10番 櫓孔을 櫓孔으로 解釋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素描上의 不分明性을 감안하여, 左右各七의 上粧櫓役(삼판櫓式)으로 看做될 可能性도 없지는 않다.)

f. 艫版 및 橫梁

艫版은 6(?)쪽을 이어 붙였는데, 위쪽에 또다시 6쪽을 二重으로 이어 붙여 橫梁 밑 部分을 補

8) 洪以燮, 「朝鮮科學史」, 正音社, 1946, 227 - 228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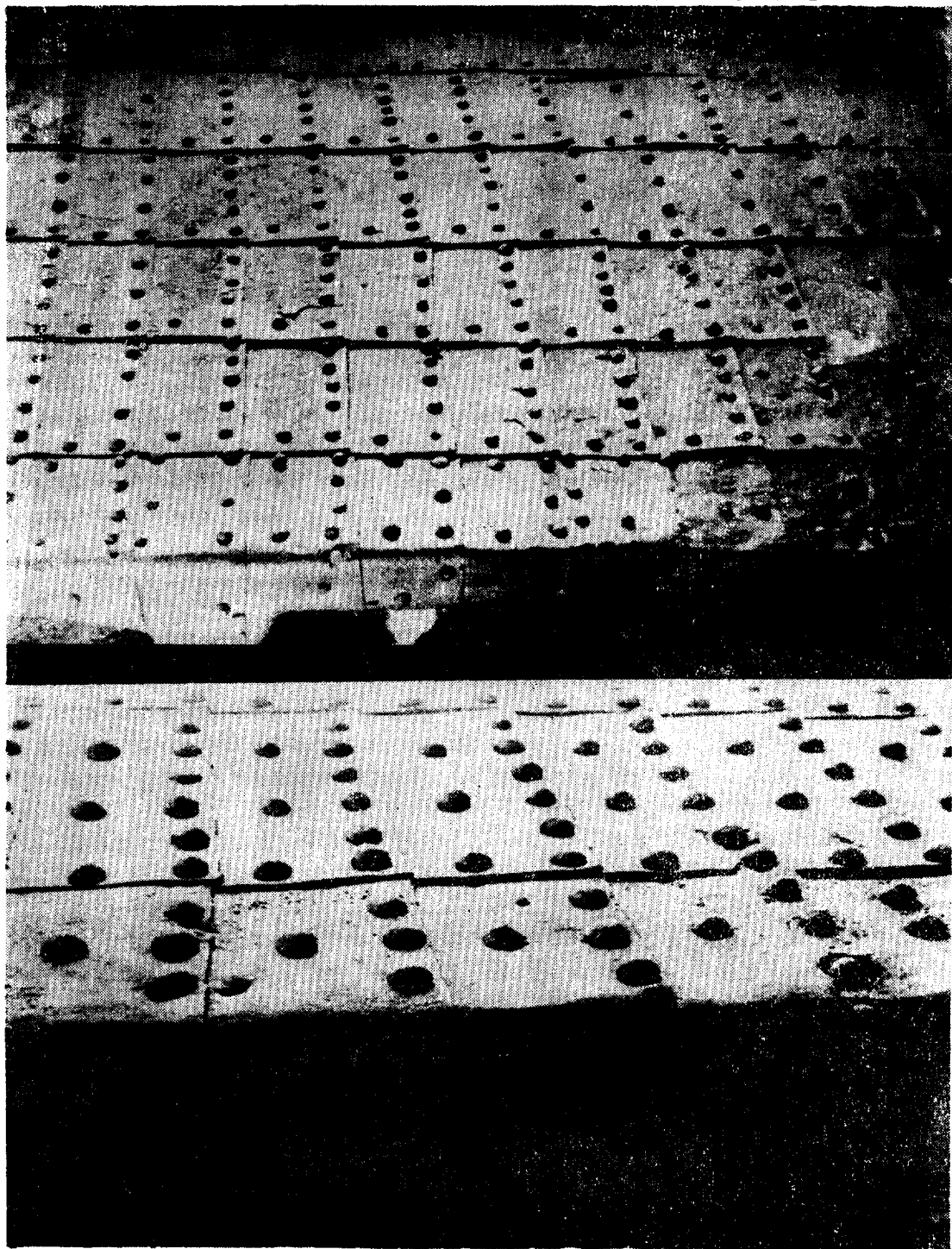


Fig. 4. Typical Korean Iron-clad Pattern in the Earlier Period of Chosŏn Dynasty: Iron-clad door at the South Gate of Seoul (below) and at the East Gate of Namhan-Sansŏng Fortress (above). It can be assumed that the similar art of the iron-clad may have been applied for the roof-deck of the turtle-boat in Fig. 3.

強하고 있는듯이 보인다. 이 橫梁部位는 앞쪽으로 다소 솟아 나와 있어, 防波의 效果도 있으려니와, 衝突時의 對備가 아닌가 한다. ——撞破攻擊(船體로 衝突하는 것)이 상투적인 戰法이었으리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우나, 「李忠武公全書」의 두 龜船圖와 比較한다면, 如何히 堅固한 船首構造인가를 實感하게 한다. 「全羅左水營龜船의 鬼頭」같은 것은 없다.

g. 船首砲穴

構梁 위의 左右牌板에 砲穴 한個씩이 明確하게 表示되어 있다. 全羅左水營龜船의 「龜頭下砲穴二」(按說)에 該當되는 것이다.

h. 龍頭型

龍頭는, 『前設龍頭 口放大炮』(唐浦破倭兵狀, 壬辰 6月 14日)의 砲門으로서의 「放砲型龍頭」가 아니라, 全羅左水營龜船(「李忠武公全書」)과 같은 「吐煙型龍頭」이며, 한창 硫黃燄 煙氣를 吐하고 있다. ——按說의 『裏燕硫黃燄硝 張口吐煙如霧 以迷敵』의 表現과 같은 光景이다. 龍의 목은 牌欄에 이어 칸 판자 위에 세워져 있다.

按說은 統制營龜船(附錄 3의 上圖)을 가리켜 「忠武舊制」에서 由來된 것으로 言及하고 있으나, 그것은 公 自身の 初戰期의 戰果報告 속에 表現된 『前設龍頭 口放大炮』의 龍頭에 對한 說明만 보더라도 當然한 것이다. 바꾸어 말한다면, 統制營龜船의 龍頭는 그 아구리를 通하여 射擊이 可能한 放砲型 龍頭로 表現되어 있는 것이다. 한편, 壬辰亂 前期에 活躍한 5隻⁹⁾의 姊妹艦(거북선) 사이에는, 이미 實戰經驗에 따라 部分的으로 改造되었을 可能性도 排除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그중에는 板屋船에서 改作된 것도 없지 않았을가 한다.) 따라서 筆者는 龜船紋圖의 龍頭表現에 힘입어, 左水營 龜船型의 「吐煙型龍頭」 및 그밑에 增設한 2門의 砲穴도, 非戰時의 後代에서라기보다 이미 壬辰亂 當時에 着想, 改良된 類型이 아니겠는가 하고 推測하게 되는 것이다. 이 龜船紋圖의 거북선 描寫가 行錄 等の 記錄에 依存한 것이 아님은, 그 龍頭의 表現이 잘 立證해 주고 있다.

i. 船尾形

陶磁器 自體의 年代性 如何를 莫論하고, 이와 같은 船尾形의 龜船(또는 板屋船)이 正祖期(「李忠武公全書」出版)以後의 繪畫에 나타날 可能性은 거의 없을 것으로 判斷된다. 卽 左右舷板(杉板)의 船尾部分의 描寫에 있어서, 그 誇張된 彎曲型雙葉¹⁰⁾이 없다는 점이 特異한 것이다(附錄 6 및 附錄 7 參照). 이와 같은 特徵만 考慮하더라도, 이 龜船紋圖의 時期는 늦어도 正祖期 以前, 또는 龜船의 變化가 뚜렷해지기 以前, 卽 肅宗期 以前의 年代로 溯及되어야 할 것이다. (도 素描上의 殘劃인지는 分明하지 않으나, 『後爲龜尾 尾下有銃穴』(李芬)의 거북이 꼬리에 該當될 듯한 것이 어렴풋하게 보이고 있다.)

以上 龜船紋圖를 觀察하여, 龜船의 構造 描寫를 主要部分으로 나누어 檢討, 吟味하였다. 各項의 特徵을 綜合하여 볼 때, 이 鐵甲龜船圖는 壬辰亂 當時의 龜船像을 隱然中에 暗示해 주고 있다. 鐵甲傳說의 成立의 眞意를 默黙히 代辯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龍頭型은 當時記錄인 「口放大炮」의 放砲型이 아니라 『裏燕硫黃燄硝 張口吐煙』(按說)의 吐煙型(raised position)으로 表現되어 있다. ——畫家 自身이 回想하는 龜船像이 그대로 描寫된 것이 如實하므로, 이와같은 龍頭型도 이미

9) 李鍾學先生은 明나라의 「査問本國軍兵」에 對한 咨文內容에서 『三道水軍統制使 李舜臣은 巨濟縣 芝罘 바다 閑山島에 住泊하고……戰船 26隻 龜船 5隻……哨探船 31隻……』(乙未(1595) 3月) 等の 記錄을 確認하고 있다. (『朝鮮日報』, 1976年 4月 29日 參照)

10) 正祖 때에 出版된 「李忠武公全書」(1795)의 全羅左水營龜船圖나, 그以後의 圖寫本으로 看做되고 있는 奎章閣藏本의 「戰兵各船圖」에 나타나 있는 戰船의 船尾는 다같이 誇張된 彎曲雙葉型이다(附圖 6 參照). 金龍國先生은 龜船의 變遷過程에 關한 研究에서(引用文獻 1), 이와 같은 雙葉尾는 後代에 改作된 것으로 推定하고 있다. 또, 「唐浦前洋勝捷之圖」(1604)에 나타나 있는 板屋船을 보더라도, 上舷이 거의 舷板 끝까지 미치고 있어 雙葉彎曲의 強調는 볼 수 없다(附錄 7 參照).

壬辰亂 當時에 實現된 것으로 보는 것이 順理가 아닐까 한다. (硫黃焰硝法은 中國에서 이미 11世紀 以前에 使用된 것 같다(J. Needham).)

龜船紋항아리는 日用品 또는 商品이라기보다는 하나의 回顧作品이라 함이 맞을 것 같다. 鐵甲龜船에 對한 實像을 간직한 生存者에 依하여 그려진 것이 아닐까 한다. 筆者는 여기에서, 巡檢使 權盼이 光海君 7年(1615), 喪失된 忠武公의 舊制를 淸定하기 爲하여 三南의 水營을 檢閱한 時節을 聯想하지 않을 수 없다(Ⅱ節 參照). 이 龜船紋圖는 (또는 이에 對한 原圖는), 李舜臣의 水軍에 從軍한 바 있는 生存者(畫員 또는 陶畫工)에 依하여 描寫되었을 可能性 말고는, 달리 說明할 方途가 없지 않을까 한다. —磁器 自體의 鑑定年代를 감안하여, 1592(壬辰)年에서 1620年代까지가 가장 有意味한 時期로 看做되는 것이다.

Ⅳ. 壬辰年(1592)의 倭側記錄「高麗船戰記」에 對한 補遺의 註釋

筆者는 이미 李舜臣龜船의 鐵裝甲에 關한 前 論考에서 倭側記錄인 「高麗船戰記」를 引用하여, 特別 龜船에 關聯되는 句節을 詳細히 解釋한 바 있다(「한국과학사학회지」, 제 1 권 제 1 호, 32頁 參照). 本稿에서 이 倭側記錄에 對하여 거듭 註釋을 첨가하는 것은, 이 史料의 筆寫原本을 確認하고—史料 搜索의 徹底를 期하기 爲하여—이 記錄物에 對한 史料性을 分析, 評價하는 데 그 目的이 있는 것이다. 解放 以後 國內의 몇몇 學者들이 龜船에 關聯된 같은 內容의 日本側記錄에 對하여 아무런 史料性의 檢討도 없이(적어도 資料의 源泉確認도 없이) 안일하게 形式的으로 引用하고 있어, 그 沒認識함은 過히 鐵甲說 論議 以前의 知識의 怠慢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即「高麗船戰記」속의 龜船에 關聯되는 句節과 同一한 內容을 引用하되, 모두 「志摩軍記」의 引用文으로 註를 붙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筆者가 일일이 그 著者들에게 問議하여 본즉, 「志摩軍記」 自體를 直接 確認해 본 일은 없다는 것이다. ……한편, 「志摩(磨)軍記」(上卷)의 原本 寫本을 보면, 역시 壬辰亂 當時의 海戰 實況을 收錄하고 있으나, 그것은 主로 倭水軍의 旗艦「日本丸」이 安骨浦海戰에서 우리 水軍의 (龜船의) 攻擊을 받아 大破되어 危機에 處하였던 事情을 記述하고 있는 것이다. (日本學者의 말에 따르면, 이 「志摩軍記」 原本이 上卷으로 表記되어 있는데 元來 下卷이 따로 있었는지의 與否는 不明하다는 것이다.)

元來「高麗船戰記」와 「志摩軍記」에서 安骨浦海戰에 關聯되는 記述部分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文獻은 日本의 舊參謀本部가 1924年(日本年號 大正 13年)에 編纂한 「日本戰史」의 朝鮮役篇이다.¹¹⁾ 이어 1926年 日本人研究者 太田保一郎이 「甲鐵艦は 朝鮮の 發明なり」(甲鐵艦은 朝鮮의 發明이다)라는 論題로 世界最初의 甲鐵艦임을 熱烈히 主張하게 된 것도 「日本戰史」에 게재된 「高麗船戰記」의 資料에 依據함이 아닌가 생각된다. (餘談이나 日本의 戰國時代에(1578年, 天正 6年) 九鬼嘉隆가 만든 6隻의 배(大安宅)가 『人數五千程ノル, 横へ七間, 豎へ十二, 三間モ在之, 鐵ノ船也, ……』(多聞院日記)라고 하여, 이것을 甲鐵船으로 부르는 日本學者도 없지 않으나, 樓屋(矢倉)部分만이 鐵板으로 防備된 큰 安宅型 軍船이라는 文化廳文部技官 宇田川武久씨의 解釋이 適合할 것이다(「歷史讀本」, 1979年 10月, 236面). 또한 安宅型 軍船은 裝甲船이 아니다!)

「高麗船戰記」의 原典에 該當되는 筆寫原本은 數冊 程度가 保存되어 있을 것이라 한다. —여기에 寫眞으로 옮긴 寫本(第5圖)은 佐賀藩의 藩主였던 鍋島家에 傳承된 藏書로서, 1935年(昭和 10年) 日本 九州大學 文化史研究施設에서 謄寫되어 當 施設에 所藏되고 있는 史料이다. 本文은 111列에 達하는 文語文體의 文章으로 되어 있으며, 織田信長 弑害事件에 이어 豐臣秀吉이 登極, 諸領을 統一

11) 參謀本部 編纂, 「日本戰史」(朝鮮役), “第33 九鬼嘉隆安骨浦, 戰功,” 偕行社, 1924,

註. 解放後에도 重版되었다고 함.

高麗船戰記 完



Col. 5

..... (CONTINUED)

61

大矢バウ火矢ニテウナカケ中書ノ舟世九艘焼
ザリ其外ノ船ハ逆討候中書ハ大矢約ト云早船
ニ乗移リ早速御退中書侍令ハ大略無残被
果僕然者大隅守殿左馬助殿御兩人ハ中書御
由被聞石及同六日、徒金山浦後瀬外ロエ
御城便七日加濃嶋ニ提兵ニテハ日在高麗島嶋
ト云込ノ漆、入候テ御座候古ニ九日ノ辰、判
ヨリ敵大船五十八艘共外小船五十艘ヲテ責
懸候大船、門三艘目ヨリ船鐵ニテ要害レ石火
矢六バ火大將僕ホニテ辰ノ判ヨリ酒ノ判迄
入り込、責候テ矢藏ヲモラウカラモロカケレ
ノ要害ヲモ悉打破候後石火矢トイフ堅木長ヤ

70

110

80

..... (CONTINUED)

七月廿八日

大隅様高麗御蜂起、初於金山浦：天正七年壬
辰七月廿八日：々々外同某左衛門六十九歳
誠愚先之事端不顧後見、嘲述意之者也
右古録有前田大藏貴山藏書永歲持傳由文化共
而寅季夏廿有二日寫之
此古記有奏書紙ノ類ニテ誠戰場、テ記之字
外同某左衛門先祖代ヨリ未聞何之士不審金山
浦合戰敵ヨリ打掛九堅木火矢六バ令古城藏庫
細之而此時大隅ヨリノ恩狀同納之
此古記九鬼泉良之御藏也後語之余乃泉良所自記余就松
前居而指之使遠山子繪之以為奇藏云
甲戌之暮春 赤城山人書

Fig. 5. Japanese Original: *The Record of Ship-Battles in Korea* (Soto-oka Jinjaimon, 1592).

In columns 67-77, it reads, "...About 8 o'clock in the morning the enemy fleet [Yi Sun-Sin's fleet], composed of 58 large ships and about 50 small ships, began to make an attack on ours [the Japanese fleet commanded by Yosataka Kugi and Yosiaki Kato]. Three of the large ones were blind ships [turtle-boats] shielded with iron. Their attack continued until about 6 o'clock in the afternoon, by firing large fire-arrows [Japanese term] through repeated alternate approaches, even as close as 18-30 feet. As a result almost every part of our ships—the turret, the passages and the side shielding—were totally destroyed..." (The passage also describes very precisely the structural details of the large arrows fired by the turtle-boats.)

한 後, 侵略의 亂을 일으키기에 이르는 國內變遷의 內容으로 始作된다. 일일이 날짜가 明示되어 있는 叙述內容이 무척 印象的이다. 이어 이 船戰記(海戰記)는 釜山浦 侵攻 以後 6月末에 이르는 사이에 倭水軍이 겪은 몇가지 海戰과, 그에 따르는 連敗의 慘狀을 記錄하고 있다. 第5圖의 本文中, 이 部分에서 閑山海戰의 첫 部分까지 削除하였다(6-60列).

海上의 戰勢를 만회하기 爲하여, 大隅守殿(九鬼嘉隆: 구기 요시다까), 左馬之助殿(加藤嘉明: 가토 요시아끼) 및 中書(脇坂安治: 와카사카 야스하루) 등 3名の 倭水軍將은 艦隊를 整備強化한다. 이윽고 7月 6日 脇坂安治는 戰功을 세우기 爲하여 自己의 艦隊 60-70隻을 이끌고 出陣한다. 그러나 70-80隻의 敵艦隊(見乃梁에서 對峙하는 李舜臣艦隊)속에 進擊하게 되어 亂戰 끝에 39隻을 불태워 잃고(本文 61列), 나머지 배들은 散散이 흐트러지고 달았는데, 大將인 中書(脇坂安治)탄은 大天狗라 일컫는 빠른 배에 옮겨 타고 逃走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7月 8일에 있는 閑山勝捷에 該當되는 記錄이다. 『見乃梁破倭兵狀』, 卽 公의 戰果報告書에 따르면 大中小의 倭船中 焚滅한 것만도 47隻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支離滅裂의 狀況 속에서 불타 없어지는 배 39隻을 倭軍 스스로 確認한 것만도 요령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또 한편 被害堪定에 으레 隨伴되는 줄임셈을 감안한다면, 이 倭側의 記錄內容도 無理없이 首肯될 수 있을 것이다.

閑山島前洋海戰에서의 脇坂艦隊의 敗北에 이어, 九鬼嘉隆 및 加藤嘉明의 두 倭將이 거느린 倭艦隊가 移動하게 된다. 이 後續艦隊가 釜山을 떠난 것도 역시 7月 6일로 되어 있다. 結局 이들 倭艦隊가 安骨浦에 이르게 되어, 또 다시 李舜臣艦隊의 날카로운 攻擊에 挫折된다. 倭艦隊는 바다로 나와 싸울 엄두도 못내고, 하루 終日 우리 艦隊의 一方的인 攻擊을 받아 배와 人命의 莫大한 損失을 입는다. ——이것이 所謂 壬辰年 7月 10日(倭曆 7月 9日)에 있는 「安骨浦海戰」인 것이다. 特히 九鬼嘉隆의 旗艦「日本丸」은 실새없는 龜船의 近接砲擊을 받아 大破된다. (浸水狀態에까지 이르나, 미리 待機시켜둔 木手들의 修理로 간신히 危機를 모면하는 實況이 「志摩軍記」에는 잘 描寫되어 있다.)

「高麗船戰記」中에서 「安骨浦海戰」에 對한 記錄은 第5圖의 本文中 66-79列에 該當되고 있다. 筆者는 이미 前 論考에서 이 部分에 대한 解釋을 제시한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註釋欄에 옮겨 讀者의 便宜를 圖謀하고자 한다.¹²⁾ 本稿의 目的과 直結되는 가장 重要한 句節인 『……大船ノ内三艘目クヲ船鐵ニテ要害シ……(69列)』에 對하여, 筆者는 『大船中の 三隻은 官船(장님배: 龜船)이며, 鐵로 덮여져 있고,……』라고 번역하였다. ——여기서 더욱 慎重히 해야 할 文句는 바로 『……鐵ニテ要害シ……』인데, 多幸히도 日本 國學院大學教授 桑田忠親博士와 作家 山岡莊八씨의 監修로 編纂된 「日本の戰史」: 5¹³⁾ 속에 譯文이 있어, 該當句節에 對한 國語文體인 『……鐵でおおわれており,……』에 依據하여 『……鐵로 덮여져 있고,……』라고 옮긴 것임을 밝혀 두는 바이다. ——더구나, 原文 그대로 『鐵로 要害하였다』하면, 鐵板을 임혀 防備하였다는 뜻으로 새겨 마땅한 것이다. (龜船 背板에 낀 鍬刀 또한 廣義로는 「鐵」로 「要害」한 것임에 틀림없으나, 이 記錄者는 本文 71-72列에서도 『……足カクシノ要害……』라 하여, 「要害」라는 表現을 防牌-構造의인 意味로 使用하고 있음이 分明하다. 따라서 더 以上の 分化된 語義分析에 紙面을 낭비할 必要는 없을 것 같다.) ——卽 李舜臣龜船의 鐵裝甲을 立證하는 現存 記錄史料로서는 이 「高麗船戰記」가 唯一한 것이다. 이로부터 240年後(1831) 「征韓偉略」(註 6)은 이 「高麗船戰記」를 引用하여, 『……敵船有以全鐵裝者, 我砲不能傷,……』, 卽 『……敵船中에는 온통 鐵로 장비한 배가 있어, 우리의 砲로써는 傷하게 할 수가 없었다……』라는 解釋을 加味하고 있다. ——「征韓偉略」은 第一史料(Quelle)가 아니다.

끝으로, 이 海戰記의 史料로서의 外的條件, 卽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記錄한 것인가를 確證함으로써 本節의 註釋을 끝내고자 한다. 第5圖에서는 寫本의 本文中 81列부터 107列까지의 記

12) 「高麗船戰記」의 安骨浦海戰에 該當되는 記錄內容은 「한국과학사학회지」, 제 1 권 제 1 호, 1979, p. 32 參照.

13) 桑田忠親, 山岡莊八 監修, 「日本の戰史」: 5, 朝鮮の役, 徳間書店, 1965.

錄文을 省略하였다. 108列의 「七月廿八日」은 記錄日字이며, 109 - 111列의 記錄者 自身の 맺는 말로 이 「高麗船戰記」의 全文이 끝나고 있다. 卽『豐臣秀吉(大閣)의 高麗蜂起時, 釜山浦에서 天正二十年 壬辰(1592) 七月二十八日』에 □□外岡甚左衛門 六十九歲인데, 삼가 어리석은 老人의 붓끝이 後日의 바움을 무릅쓰고 써 놓고자 하는 것이다』라는 뜻으로 맺고 있는 것이다. 이 記錄者(外岡甚左衛門, 69歲)의 結語는 때, 場所 및 動機 등을 明確하게 나타내고 있으므로, 더 以上の 補充說明이 必要 없을 것이다. 다만, 이 老記錄者의 職責이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軍船의 技術整備을 맡은 老校일까, 또는 文事를 맡은 倭旗艦의 老臣일까? 後日 丙寅年 季夏(7月) 22日, 前田大藏貴正藏書에서 「高麗船戰記」를 베껴 쓴 轉寫者는 다음과 같이 追記하고 있다: 『이 古記는 奉書紙(當時의 公文書用紙)의 종류인데, 實際 전쟁터에서 적은 것이 아니겠는가. 다만 外岡甚左衛門은 先祖때부터 어떤 人士인지 듣지 못하였다. 釜山浦合戰에서 敵이 쏘아 낸 堅木火矢(大箭)는 지금까지도 古城의 藏庫에 들어 있고, 또 그때 豐臣秀吉(大閣)로부터의 感謝狀도 같이 들어 있다』(112 - 117列 參照). ——以上으로 「高麗船戰記」에 대한 註釋을 줄인다.

V. 鐵裝 - 裝甲船으로서의 龜船에 對한 歷史的 評價

美國의 南北戰爭 當時, 1862年 3月 9日, 北軍의 鐵甲船 모니터號(Monitor)와 南軍의 鐵甲船 메리 맥號(Merrimack)는 彼此의 決定的인 戰勢를 걸고 勇猛無雙하게 싸웠다. 이 決鬪는 한마디로 「裝甲의 싸움이라 하여도 過言은 아니었다. 結果는 J. 에릭슨에 依하여 創製된 모니터號가 勝利함으로써 北軍의 戰勢는 크게 回復될 수 있었다. 後日, 世界의 海軍이 본따게 된 모니터號의 砲塔은 그 裝甲板의 두께가 20cm에 達하였으나, 大砲는 口徑 28cm의 滑筒砲 2門을 裝備하였을 뿐이다.¹⁴⁾ ——이들 鐵裝 - 裝甲船의 諸元을 簡單히 比較해 보면 다음과 같다: 모니터號는 全長 52.5m에 987t, 速力은 9kt로 메리맥號보다 훨씬 작은 新銳戰船이며, 이와 맞섰던 메리맥號는 全長 84m에 約 4000t, 速力은 같은 9kts이며, 10.5cm 두께의 效果的인 傾斜裝甲 그리고 口徑 23cm 6門을 비롯하여 전부 12個의 砲를 設置한 改裝戰船이었다. 이들 鐵甲船 사이의 勝負는 고사하고, 이미 木造戰船의 時代는 徐徐히 幕을 내리고 있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丙寅洋擾(1866)를 맞게 된 大院君이 『거북선과 같은 鐵甲船을 만들라』고 命令한 것은, 時代에는 符合되었으나, 技術의 空白으로 失敗를 면하지 못하였다.) 모니터號에 3年 앞서, 1859년에 進水된 프랑스의 글루아르號(Gloire)는 舷의 吃水部位에 12.2cm, 上部舷板에는 11cm 두께의 鐵板을 裝着함으로써 近代鐵甲船의 前兆를 이루었으나, 이듬해인 1860년에 進水된 英國最初의 鐵裝主力艦 위리어號(Warrior)는 46cm 두께의 甲板에 11.4cm 鐵板을 입힘으로써, 프랑스를 능가하기도 하였다.¹⁵⁾……前近代期の 鐵甲船의 歷史를 總括的으로 評價하는 일은, 筆者의 力量이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本稿의 範圍를 훨씬 넘어서는 作業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美國의 南北戰爭當時 緊迫한 戰況 속에서, 北軍의 發明家 J. 에릭슨에 依하여 戰術의 效果가 徹底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設計, 建造되어 實戰에서 그 實用性을 充分히 發揮한 바 있는 모니터號를 近世 鐵裝 - 裝甲船의 典型으로 特記하는 데 異議가 없을 것이다.

한편, 美國의 모니터號(1862)에 앞서기를 270年, 所謂 裝甲戰法의 直系元祖가 이미 이곳에 存在하였다. ——木造戰船時代가 낡은 世界 最初의 鐵甲船, 卽 李舜臣에 依하여 創制된 鐵裝 - 裝甲船(iron-armour-clad wooden fighting ship)이 바로 그것이다. 海戰史上, 火砲가 實用化된 以後 艦隊運動과 砲擊戰은 主戰法으로 한 所謂 近代式海戰의 特色을 가장 두텁하게, 또한 成功的으로 보여 준 것은 李舜臣의 水軍이었다. 또한 잇따른 海戰에서 交戰時마다 倭艦隊 속으로 거리낌 없이 突入, 放

14) 黛治夫, 「艦砲射擊の歴史」, 原書房, 1977.

15) P. Padfield, *Guns at Sea*, London: Hugh Evelyn, 1973.

砲하여 機先을 制하고, 戰勢確立에 큰 使命을 다하였던 龜船의 功績을 높이 評價하지 않을 수 없다. 龜船은 바로 그와 같은 戰術的 目的을 達成할 수 있도록 考案된 것이다. 卽 한두번의 요행이 아니라, 數없이 遂行한 接近攻擊에서——往往 敵船과 接觸 또는 衝突할 程度로 突入하여——敵의 集中射擊과 放火攻擊을 裝甲으로 支撐하며, 敵船에게 必中の 致命的인 攻擊을 加할 수 있었던, 이른바 裝甲戰船인 것이다. 一般戰船도 關心 如何에 따라, 重要部位에 對한 鐵板의 裝着이 隨時로 可能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境遇는 裝甲船(armour-clad)으로서의 鐵甲은 아니며, 當初 裝甲突擊船으로 誕生한 龜船과는 그 戰術的 機能이 本質적으로 다른 것이다.——이와 같은 觀點에서, 龜船의 直系元祖를 古代中國의 蒙衝이라 함은 興味있는 比喩라 하겠다.

그리고, 龜船의 鐵裝은 龜背板의 鐵鈐 및 鐵甲뿐만이 아니라, 兩舷의 砲穴牌板도 역시 薄鐵板으로 適切히 補強되었을 것으로 思慮된다. 所要鐵量은 隻當 5~9t이던 充分할 것이므로, 特히 船高가 낮은 龜船의 境遇, 배의 安定性에는 아무런 支障도 없는 것이다. 龜船의 높이는 比較的 낮은 것이 確實視되고 있다. 卽 龜船마다 多少의 差違가 있었다 하더라도, 높이는 大略 14尺 程度가 아니었을까 한다(附錄 5 參照). 倭軍의 別稱으로 장님배(目クラ船)로 記錄된 龜船은, 名實 完全한 裝甲船으로서, 交戰時는 勿論, 平素의 航海時라 할지라도 乘務員이 背甲板 밖으로 나올 機會란 뜻의 操作 等 必要한 때를 除外하고는 別로 없지 않았을까 한다. 乘務員의 不便함이 짐작되고도 남음이 있다. 거북모양을 본따서 만든 徹底한 裝甲船이며, 鐵鈐錐刀를 꺾은 彎曲된 龜背板 外에는 발을 붙이고 亂入할 만한 場所는 아예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特色이다.

朝鮮時代의 遺物인 鐵甲의 例는 아직도 우리 周邊에 남아 있다. 都城 및 山城의 城門扉에 裝着되어 있는 두께 2~3mm의 鍛造鐵葉을 볼 수 있는 것이다. 記錄은 없어도 잘 存在하고 있다. 한낱 지난 날의 遺物에 不過한 것이다. 따라서 鐵甲의 對象은 歷史的 事實일 수도 있으나, 또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壬辰亂 以前에도 東西洋을 通하여, 싸움에 鐵板이 利用된 事例는 적지 않을 것이다. 李舜臣에게 敗한 倭將 九鬼嘉隆은, (前節에서 餘談으로 言及한 바와 같이) 이미 壬辰亂 以前에 織田信長 밑에서 安宅型의 大型軍船을 建造하여 樓屋部分을 鐵裝한 事實이 있으며, 또 丁酉再侵 때도 鐵板을 使用한 것으로 되어 있다.

火藥의 힘으로 彈丸을 쏘는 砲(火槍)는 1230年頃 中國에서 發明되었다고 한다.——起伏 많은 中國의 戰國時代에는 江과 湖水에서의 水戰이 큰 비중을 차지하여, 軍船의 開發 또한 多彩로왔던 것이 事實이다. J. 니덤教授의 名著「中國의 科學과 文明」¹⁶⁾ 속에는 李舜臣의 龜船이 引用되어, 攻擊火器의 發達에 由來되는 裝甲船으로서의 意義와, 그 實戰上의 成功이 높이 評價되어 있다. 그리고 同 著者는 木造戰船時代에, 龜船이 나오기 以前에 이미 鐵板이 使用된 일이 있음을 記錄으로 몇가지 例示하고 있다: 1585年, 안트워프(Antwerp)의 攻略當時, 네덜란드의 戰船 피니스 벨리스號(Finis Bellis)는 部分的으로 鐵板에 依하여 防備된 배였으나, 곧 坐礁되어 鹵獲되고 만다. 또, 이보다 앞서는 中國에서의 例가 두가지 引用되고 있다. 卽, 元代의 1370年, (江의) 艦隊를 指揮한 廖永忠이 船首部分에 鐵을 입힌 戰船을 使用한 記錄「鐵裏船頭」와, 南宋時代 1203年, 造船工 秦世輔가 試作한 2隻의 水槓車 推進의 海鵲船이 側面을 鐵裝하였다고 보는 記錄「新樣鐵壁鏹嘴平面海鵲戰船」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니덤은 秦世輔의 海鵲戰船이 비록 새로운 考案이기는 하더라도, 그것을 中國에서의 最初의 鐵裝船(iron-armoured ship)으로 看做할 特別한 理由는 없다고 言及, 이보다 先行되는 例가 (12世紀初 以前은 아닐지 모르나) 正規水軍이 생기고 나서는 더러 있었을 것이라는 推理를 附言하고 있다. 이는 含蓄性 있는 見解이기는 하나, 鐵甲이 火砲의 登場(1230年頃)에 先行되었으리라는 뜻도 될 수 있는지는 疑問이다. (勿論, 統一新羅時代 9世紀 前半期에 活躍한 鎮海

16) J. Needham with the collaboration of Wang Ling and Lu Gwei-Djen, *Science and Civilisation in China*, Vol. 4, Part III,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1.

將軍 張保皋의 水軍이 戰船에 鐵板을 붙인 일이 전혀 없었으리라고 斷定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如何間, 上記한 鐵裝船의 세 가지 예에 對하여는 우선 그 戰船으로서의 戰術的인 機能과 實戰上의 成果를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卽, 英語로는 iron-clad(鐵(裝)甲艦)와 armour-clad((鐵)裝甲艦)가 往往 混用되고 있으나, 上記의 戰船들이 果然 本格的인 意味에서의 裝甲船(armour-clad)인지의 與否는 確實하지가 않다. (鐵板은 고사하고, 砲手나 乘務員이 露出된 裝甲車는 裝甲車가 아니다.) 臆測한다면, 坐礁한 피니스 벨리스號(1585)나 「鐵裏船頭」의 廖永忠의 軍船(1370)도, 九鬼嘉隆의 大型安宅(1578)의 境遇와 마찬가지로 制限된 主要部位(船首)를 鐵板으로 防備한 當時의 主力戰船의 類型으로 보아 마땅할 것이다. 또한 秦世輔의 水擡(車輪)式 推進의 海龍船(1203)은 비록 獨特한 制作이라 하더라도 本格的인 裝甲船이었을 可能性은 매우 稀薄한 것으로 생각된다. — 왜냐하면, 石弓(弩弓) 및 火槍(火砲)을 비롯하여 投石機 또는 投彈機까지 裝備하였다는 點으로 보아, 그 高大한 裝甲의 施工은 그리 容易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어지기 때문이다. 한편, 『新樣鐵壁...』의 漢文表現도 그 뜻이 單一한 語意解釋으로 確定될 수 있을지가 問題이다. — 鐵壁은 鐵로 만든 壁이라는 뜻이나, 鐵瓮城이라는 形容도 있듯이, 「新樣鐵壁」도 『새로 만든 것(船)은 鐵壁과 같이 堅固하여』라는 풀이도 어찌된 있음직한 일이다. 이와 같은 觀點에서 筆者는 니덤教授에게 上記한 두가지 中國軍船의 構造에 對한 보다 詳細한 資料에 對하여 問議한 結果, 同 著書(*Science and Civilisation in China*)의 該當內容보다 (지금으로서는) 더 詳細한 資料는 없다는 것, 그리고 또 完全한 裝甲船으로서의 李舜臣의 거북선이 世界歷史에서 最初의 試圖였다는 見解, 그러나 또한 같은 目的으로 部分的인 裝甲을 試圖한 例는 中國에도 以前에 이미 있었다는 內容의 高見을 다시 確認할 수 있었다.¹⁷⁾

以上の 考察에서 보는 바와 같이, 單純히 鐵板이 利用된 先例를 찾기란, 本格的인 裝甲船으로서의 本質의 檢討가 先行되지 않는다면, 陸戰에서의 戰車(tank)의 起源을 追跡하는 것만큼이나 模糊한 일이 아닐 수 없다. 李舜臣龜船은 文字 그대로 甲殼類의 楯狀部(crustacean shield)를 본따서, 穹窿化된 龜背板을 鐵裝甲한, 名實 火炮時代의 戰術에 相符되는 本格的인 裝甲船(armour-clad)인 것이다. 木造戰船時代의 裝甲船의 歷史를 概括한다면, 背板을 소의 生皮로 補強한 古代中國의 蒙衝(以生牛皮蒙船覆背(通典)), 背板에 鐵葉을 임쳐 裝甲한 李舜臣의 龜船, 그리고 近代의 鐵甲船으로 成功을 거둔 美國의 모니터號가 一聯의 直系의 典型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아 마땅할 것이다.

謝 辭

이 자리를 빌어 本稿의 各節을 作成하는 데 도움을 주신 여러분께 感謝의 말씀을 드리하고자 합니다: 壬辰倭亂以後의 龜船의 變遷過程에 對하여 多忙하신 中에도 때를 가리지 않고 親切히 下敎하여 주신 서울市史 編纂委員 金龍國先生님께 깊이 感謝드립니다. 또, 繪畫의 資料로 重要視되는 粉靑龜船紋항아리를 여러번 觀察할 수 있는 機會를 마련해 주신 富峰美術館의 金炯泰先生님의 厚意와 高見에 感識드립니다. 또한 日本側의 貴重한 史料인 「高麗松戰記」와 「志磨軍記」의 筆寫原本의 寫本을 보내 주신 日本 九州大學 文化史研究所의 誠意있는 協調에 謝意를 表합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李舜臣將軍과 龜船에 대한 깊은 關心으로 筆者에게 有益한 意見을 보내 주신 서울大工大의 鄭基亨教授님과 作家 崔應泰先生님, 拙稿의 文脉과 表現에 對하여 많은 助言을 주신 洪相憲教授님, 또 文獻의 解釋을 도와 주신 서울大學校 大學院의 李憲周씨와 外方 여러분의 協助에 感謝드립니다.

그리고, 特히 終節의 歷史的 考察에서 가장 큰 도움을 주신 英國의 East Asian History of Science Library의 所長으로 계시는 J. Needham 教授님께 깊이 感謝드립니다. 多忙하신데도 不拘하시고, 資料에 關한 親切한 下敎와 溫情 넘치는 激勵의 말씀을 보내 주신 誠意는 깊이 잊을 수 없습니다.

17) 私信에 대한 J. Needham 教授의 1982年 7月 29日字 回信 內容.

附錄 1. 造船差官羅大用斗左副承旨朴震元의 唐文內容 (1606).
李雲龍, 「唐本驛錄」(二卷); 李雲龍統制使의 11代孫 李祐燮翁 (號北 清道邑 元井洞 637) 所藏。

亦
馳
書
三
年
不
中
制
使
後
石
頭
不
中
高
受
使
日
城
舊
臣
等
謹
啓
事
即
到
備
送
司
開
部
除
下
於
羅
州
屬
前
縣
令
羅
大
同
政
事
長
官
州
公
大
吏
升
授
仍
六
年
南
戎
七
年
辛
卯
年
間
為
水
使
臣
等
所
役
是
時
所
承
辦
事
務
軍
官
士
兵
變
初
五
捕
留
也
既
而
戰
將
臣
以
洋
船
陳
符
忠
家
父
誠
無
二
心
提
州
祇
意
唐
項
通
等
處
十
餘
戰
皆
有
功
名
聞
朝
主
上
幸
甚
其
文
車
候
金
帛
環
城
固
城
對
身
閱
軍
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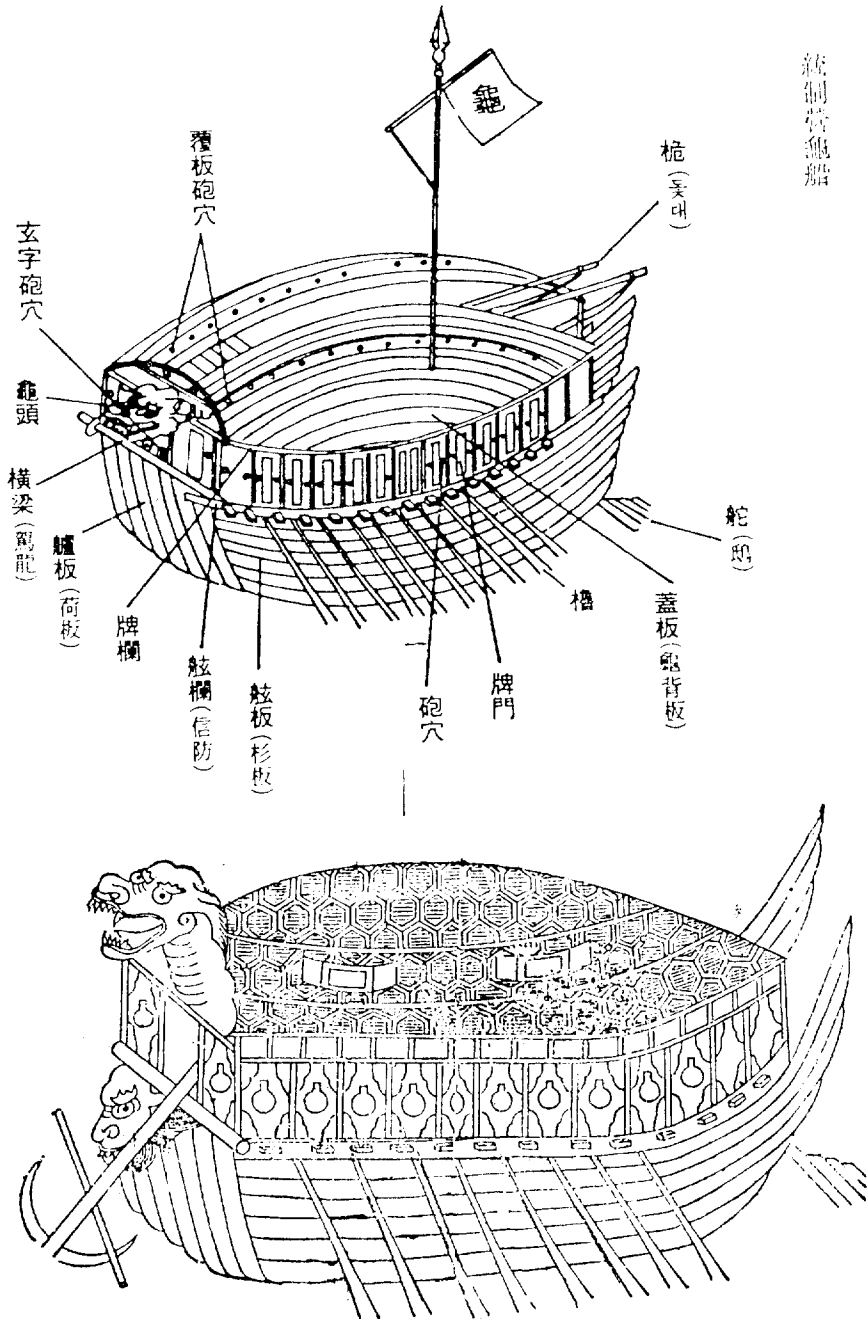
議軍兵之役卒年十月後世奏歸建禮父喪之哀云萬丁憂水自當為之貢金
閣收伏以得之宋來叶 九重之下大舉防維莫先於冊師而安展公是
問戰艦之數載至三百隻而猶為不足古史記之後戰船艚櫓之數通三四十
餘艘各處可付拉為練之和有宋虞求才無策我本不欲多戰事本是不謀然以
其事之數加俄之末則戰艦雖自利於戰則利格之戰不下幾隻然二百五十萬
人亦不慮其故各各置一隻不為加造日常金槍軍威人之來而己數年間曾
為巡察使臣解者統軍官引造戰艦二十五隻製造非致產非龍船別據
造作森神樹給以槍炮給軍馬三百分戰試評洋中真疾如飛射矢之使
亦勝於俄是乃其後君子不戰則果非乘其弱破以後身然言傲人不堅實
火不過是仿學其他右使史臣此必亦小諸將合同一隻則敵數倍而而射格則
不必加定而自所說且謂合官則戰水則船全數移載踏就各官概用其
官守公事半軍今應軍兵校書齊江待受開校閱時地紅戰所為軍銀萬
年公物防將冊師獨為操鈔事上巡邏司 督府招遠 營下是白爾亦衛師

之數果如臨所陳比前歲少為自在果是緣于因敗沒之後雖有安祿射陷
雖備之役是為將鎗承之所以保疏之意觀之則其有關於水戰便利於制
敵實非尋常常規而此水曾試用是知為白置其可用與否則于觀制侯
處然後施打何如為督臣三品年十二月初五日奉有臣杜震先次知

勝作九叔事是去有年所以向鎗艇司同與秀惠達林關施行向事
 是日有非自壬辰以後從事水戰戰艇飛龍無不講究其精妙而鎗艇司
 陳曾未試用焉言有在果要便使軍四十二人充載疾行舟中則船體便
 小不能設左右防板看夫其防板無以蔽矢石臨陣文鋒勢難措手是日
 於海良大擊水戰則水力萬千相人力何能固鎗艇開鎗走的過船之額而不
 用小者非但自古而然壬辰于角溪之役督船板多有巨艇而得捷仗
 見之就也今之鎗艇雖設載拾半便非有用而既去防甲又不能蔽放火炮
 則恐無益於戰用是日在果並不取能討且利用之妙而創造是官置上國
 大勇二鎗艇左者鎗艇十二名右者鎗艇十二名二鎗艇試射時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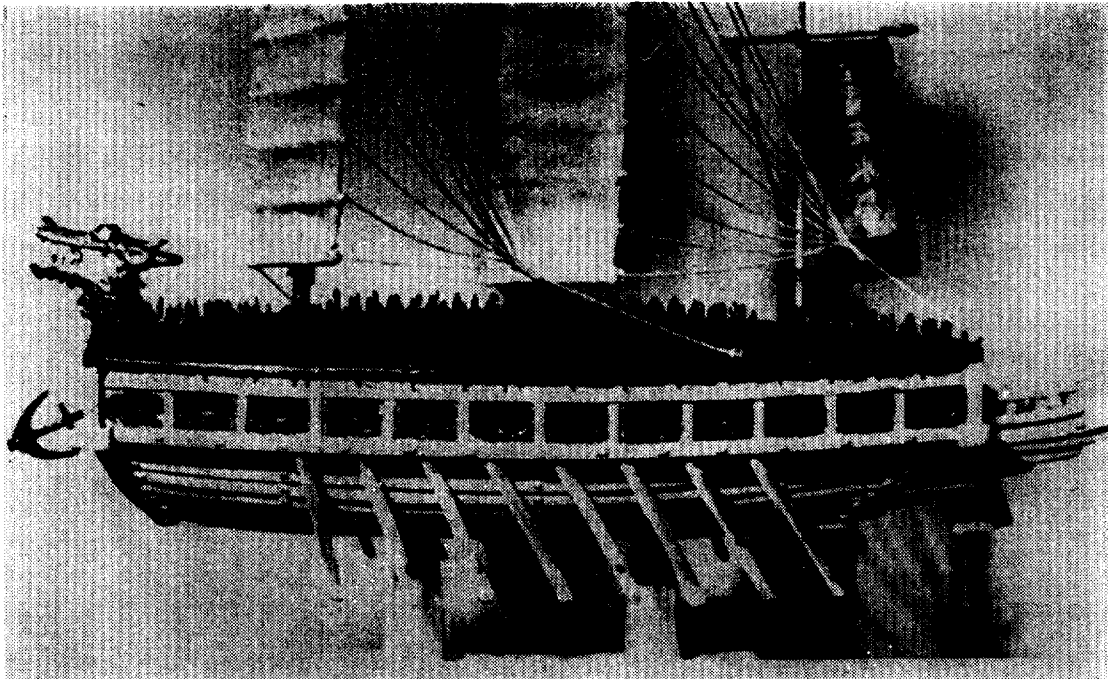
- 1 鐵船之制 底版^{木版}聯十 長六十四尺八寸 頭版十二尺 腰版十四尺五寸 尾版十尺六寸 左右舷版^{木版}各聯七 高七尺五寸 最下第二版長六十八尺 以夾加長至最上第七版長一百十三尺 並厚四寸 腰版^{木版}聯四 高四尺 第二版左右穿字窠穴各一 舷版^{木版}聯七 高七尺五寸 上版十四尺五寸 下版十尺六寸 第六版正中穿穴 經一尺二寸 插舵^{木版}左右舷設欄^{木版}欄頭架橫梁^{木版}正當欄前 若駕牛馬之屬 沿欄鋪版 周迴被牌 牌上文設欄^{木版}自舷欄至牌欄 高四尺三寸 牌欄左右各用十一版 又設腰版^{木版}鐵夾相向而設 鐵其厚一尺五寸 以便繫繩 鐵腰版鐵頭長四尺三寸 廣三尺 裏鐵碗黃銅 張口吐煙如錫 以遮蔽左右轆各十 左右牌各繫二十二 腰穴設十二門 鐵頭上第二腰穴下設二門 門傍各有一腰穴 左右腰版又各繫十二 腰穴 插鐵字庫 左右鋪版下 屋各十二間 二間藏鐵物 三間分藏火藥 爲矢指劍 十九間爲軍兵休息之所 左鋪版上屋一間 船將居之 右鋪版上屋一間 將校居之 軍兵休則處鋪版下 設開登鋪版上 納轆手窠穴 粧放不絕 按忠武公行狀云 公爲全羅左水使 知倭船 創置作大船 船上覆以版 版上置十字細路 以容人行 悉以鐵刀布之 前龍頭後鐵尾 鐵穴前後左右各六 以放大丸 洞破則編茅覆上 以掩掩刀而爲先鋒 賊欲登船 則揮鐵刀 後來掩則一時鎗發 所向莫不被版 大小賊以此敗績者甚夥 宋如朱龜 故名龜船 皇明寶龜海防談云 朝鮮龜船 有帆 帆能推挽 風烈潮落亦可行 即指公所創之船也 然而並未詳言其尺度 今裁制當龜船 蓋出於忠武所制 而亦不無從而損益 吾公之創智制船 寔在於全羅左水營 而今左水營龜船 與統制營船制 略有異同 故付見其式于下
- 20 全羅左水營龜船 尺度長廣 與統制營龜船略同 而但龜頭下又創龜頭版 上蓋龜殼 左右各有三門 龜頭下腰穴一 腰版左右腰穴各一 舷欄左右腰穴各十 腰版左右腰穴各六 左右轆各八
- 10 次相向而設 鐵其厚一尺五寸 以便繫繩 鐵腰版鐵頭長四尺三寸 廣三尺 裏鐵碗黃銅 張口吐煙如錫 以遮蔽左右轆各十 左右牌各繫二十二 腰穴設十二門 鐵頭上第二腰穴下設二門 門傍各有一腰穴 左右腰版又各繫十二 腰穴 插鐵字庫 左右鋪版下 屋各十二間 二間藏鐵物 三間分藏火藥 爲矢指劍 十九間爲軍兵休息之所 左鋪版上屋一間 船將居之 右鋪版上屋一間 將校居之 軍兵休則處鋪版下 設開登鋪版上 納轆手窠穴 粧放不絕 按忠武公行狀云 公爲全羅左水使 知倭船 創置作大船 船上覆以版 版上置十字細路 以容人行 悉以鐵刀布之 前龍頭後鐵尾 鐵穴前後左右各六 以放大丸 洞破則編茅覆上 以掩掩刀而爲先鋒 賊欲登船 則揮鐵刀 後來掩則一時鎗發 所向莫不被版 大小賊以此敗績者甚夥 宋如朱龜 故名龜船 皇明寶龜海防談云 朝鮮龜船 有帆 帆能推挽 風烈潮落亦可行 即指公所創之船也 然而並未詳言其尺度 今裁制當龜船 蓋出於忠武所制 而亦不無從而損益 吾公之創智制船 寔在於全羅左水營 而今左水營龜船 與統制營船制 略有異同 故付見其式于下
- 30 全羅左水營龜船 尺度長廣 與統制營龜船略同 而但龜頭下又創龜頭版 上蓋龜殼 左右各有三門 龜頭下腰穴一 腰版左右腰穴各一 舷欄左右腰穴各十 腰版左右腰穴各六 左右轆各八

附錄 2. 「李忠武公全集」(1975) 속에 있는 龜船에 對한 按說 全文(忠武公記念事業會 發行(1960), 李殷相 註解, 「李忠武公全集」上卷에서 轉高). 筆者註: 按說中, 4列의 「龜版(荷版) 聯四 高四尺……」은, 版畫龜船圖(附錄 3)에 表示된 龜版構造와는 判異하게 다르다. 龜版의 說明句가 되어 도 5字 以上 누락된 것으로 推理된다. 1列의 「龜船之制……」로 始作하여, 17列의 「…粧放不絕」로 諸元에 對한 說明이 끝나고, 28列 以後의 部分에서 全羅左水營龜船에 關하여 追記하고 있다. 17列의 「按忠武公行狀云…」은 李芬의 記錄을 引用하고 있는 것 같으나, 「忠武善制」에 關하여는 (傳承된 本가 없기 때문에) 明確한 言及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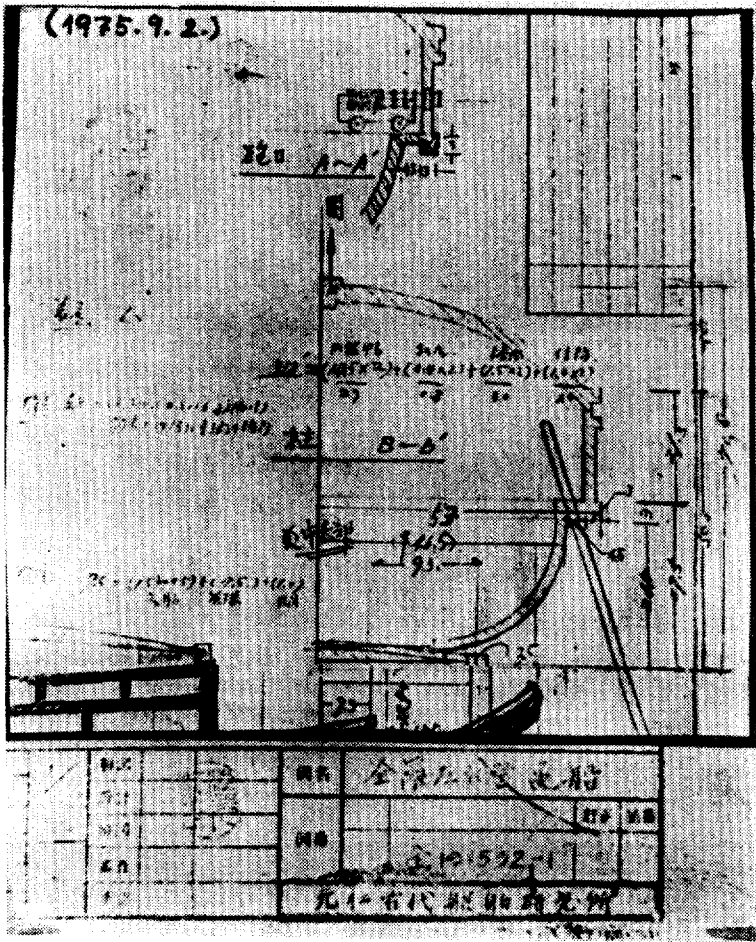


全羅左水營龜船圖

- 附錄 3. 「李忠武公全書」(1795) 속의 龜船圖. (統制營龜船에 對한 名稱解說圖는 三珍社, 「韓國史大系」 5卷에서 引用)
Two types of turtle-boat appeared in the *Complete Writings Concerning the Loyal and Martial Duke Yi* (1795).



附錄 4. 全羅左水營龜船에 對한 復原模型의 例



例 1. 全羅左水營龜船에 對한 復原設計圖(浪元植, 1975年 9 月 2日)에서 보는 斷面設計의 部分圖와 같은 設計에 依하여 만들어진 1/100 模型 龜船의 寫眞(張師洪制作). 板屋船에서와 같은 鋪板槽役을 採擇하고 있는 것이 特徵의이나, 龜船의 境遇에는 鋪板이 바로 砲甲板이므로, 射手와 槽役의 혼잡이 불가피할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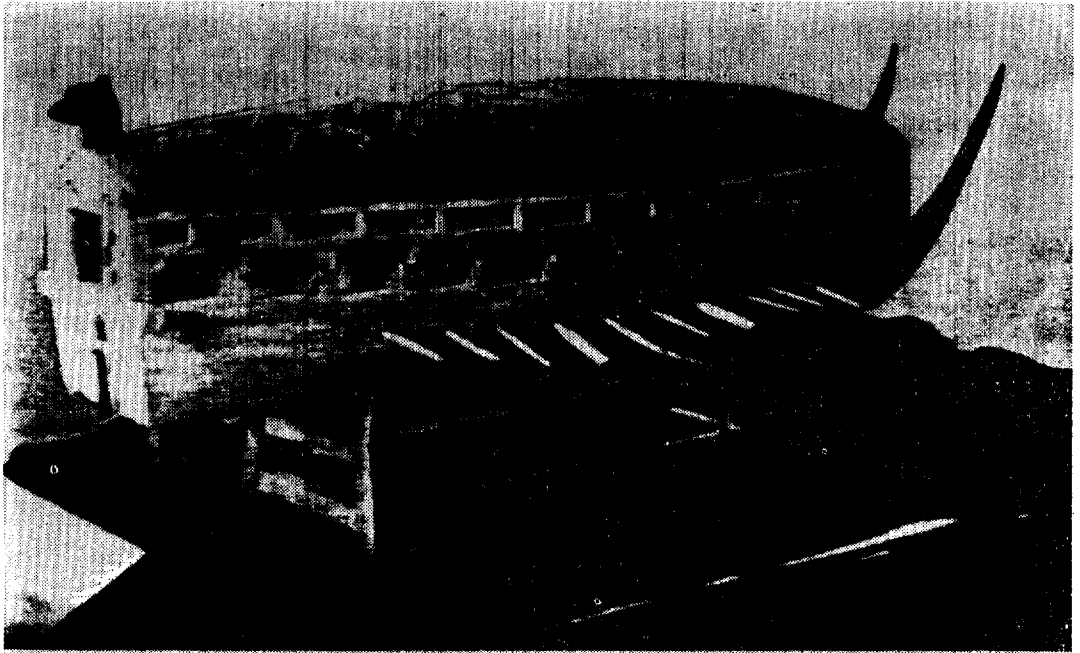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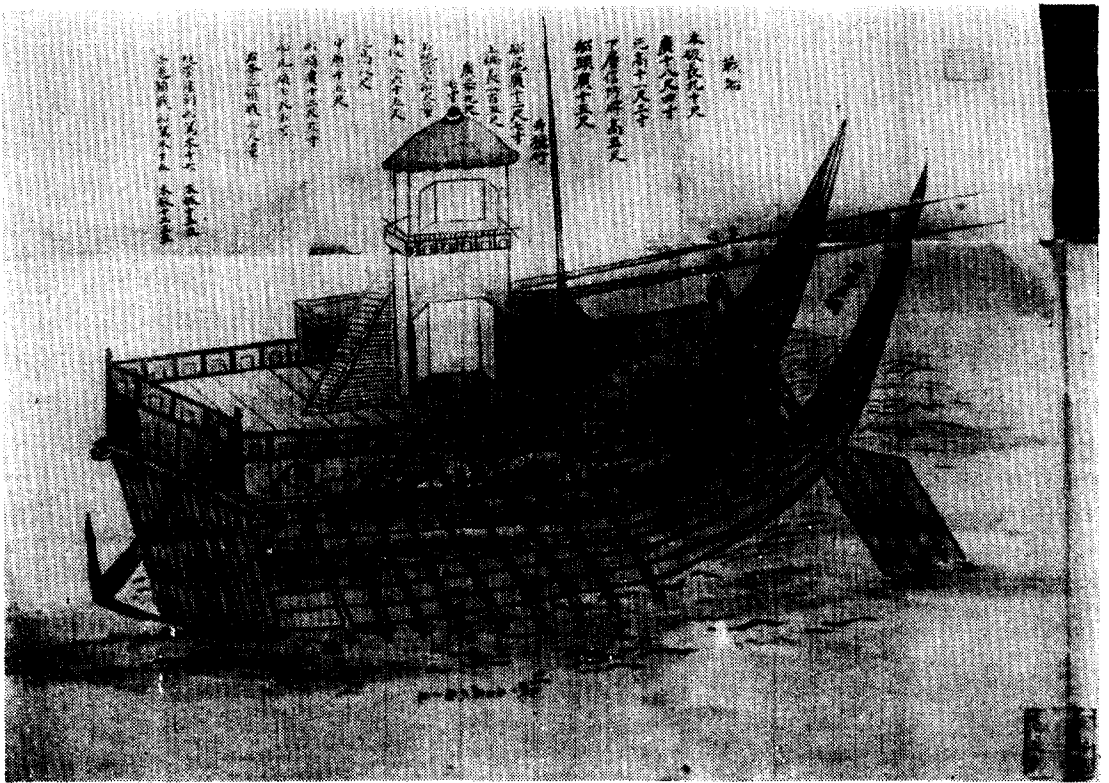


Fig. 1050. A reconstruction of one of the armoured 'Turtle ships' used by the Korean naval forces under the admiral Yi Sunsin against the Japanese in the last decade of the 16th century. The model is in the National Historical Museum at Peking (orig. photo. 1964). Cf. Underwood (1), figs. 46-9. It is believed that at least two masts were used, but lowered before battle through a central fore-and-aft slot in the armoured roof (not shown in this model) by some method of striking such as that described in Worcester (3), vol. 1, p. 79.

- 例 2. 中國 北京 國立歷史博物館 所藏의 復原龜船의 模型이다. 著者 Needham 은 說明에서 H.H. Underwood 의 論考 (1934) 속의 龜船圖를 參照하도록 附言하고 있으나, Underwood 의 復原圖도 역시 「李忠武公 全書」의 全羅左水營龜船型에 該當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北京博物館의 龜船模型에 對한 來歷은 分明하지 않으나, 北韓側의 復原模型(배의 길이와 幅의 比가 約 8對 1)과 關聯이 있을 것으로 推測 된다.



附錄 5. 1979年 6月頃 統營의 한 古屋(壁도배지)에서 發見된 水軍文書 中の 一面：「龜船旗鼓汴物外重記」.
(23cm×33cm)



附錄 6. 奎章閣藏本「戰兵各船圖」中の戰船圖, (서울大學校 圖書館 所藏)

이 戰船圖의 年代는 未詳이나, 大略 正祖期 以後의 圖寫本으로 看做되고 있다. 全羅左水營龜船圖(「李忠武公全書」)의 船型 描寫와 매우 類似한 點으로 보아, 後代의 船型임에는 틀림없을 것으로 推測된다. 그 誇張된 彎曲雙葉型의 船尾가 特徵의이다. 水面 위로 높이 치솟은 雙葉尾의 物理的 效果는 分明하지 않으나, 壬辰亂 當時의 船型과 比較한다면, 그 特徵이 判異한 것이다(附錄 7 參照).



附錄 7. 壬辰亂이 끝나고 6年 後인 1604年의 6月, 倭大船 1隻이 다시 唐浦에 侵入하였을 때의 海戰圖이다. 約 20隻의 板屋戰船이 倭船을 에워싸고 있다. 壬辰亂 當時의 板屋船을 볼 수 있는 거의 唯一한 繪 畵의 資料로 생각된다. 後代의 船型과 判異하게 다른 것은 上粧이 舷板 끝까지 미치고 있어, 船 尾에 위로 치솟은 彎曲雙葉이 없다는 點이다. (勝捷圖는 李殷相, 「太陽이 비치는 길로」 上卷에 서 轉寫함.)